

월간 가든인 9월호

September 2016

Gardenin

특집
기사

가을은 그라스의 계절



Gardenin Maintenance

가든엔씨앗/씨앗 확산, 씨앗 수확하기, 루드베키아
생활 속의 도시농업/9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s

관목시대/백자단
이명호의 야생화/구상난돌



Gardenin Culture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툰처럼 스미는 계절
힐링원예/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Gardenin Design

칼럼/가을, 동절기 식재, 하자 줄일 수 있다.
정원으로의 여행/정원의 연못, 물 이야기



강아지풀



ISSN 2288-1719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이야기로 듣는 야생화 비교도감, 한국의 야생화 바로 알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암석정원

Gardenin Maintenance

- 6 정원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 10 가든엔씨앗 - 씨앗 확산, 씨앗 수확하기, 루드베키아
-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9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식물을 키울 때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들
- 22 정원 속 보이네 - 안개꽃, 군네라, 헬레보루스
- 26 Special Issue - 가을은 그라스의 계절
- 34 관목시대 - 백자단
- 36 이명호의 야생화 - 구상난돌
- 40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스텔라원추리, 카펫주름잎, 하늘응달,
무늬대사초, 구절초, 탕지
- 44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대청부채



Gardenin Culture

- 48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틈처럼 스미는 계절
- 51 정원의 식용 꽃 - 금잔화
- 54 허브&아로마테라피 - 국내산 당귀 에센셜오일 추출
- 5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제주도 생각하는 정원
- 60 힐링원에 -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Gardenin Design

- 64 칼럼 - 가을, 동절기 식재, 하자 줄일 수 있다.
- 68 COLOR IN THE GARDEN - Black Flowers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오래된 도마와 피서지에서 주운 돌로 만드는 석부작
- 74 정원으로의 여행 - 정원의 연못, 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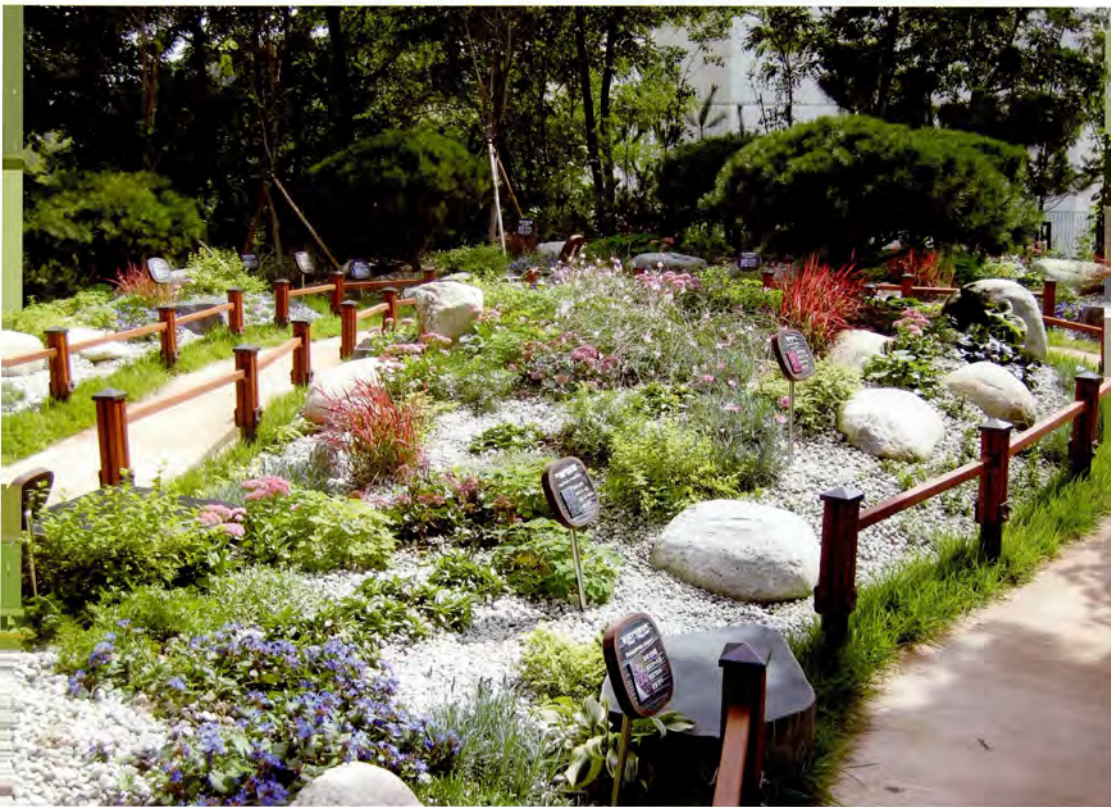
Gardenin Information

- 77 정원식물 따라잡기 - 식물의 "앞"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이야기로 듣는 야생화 비교도감, 한국의 야생화 바로 알기

이 달의 포커스

암석정원 (Rock Garden)

암석정원은 돌과 식물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어울리게 하는 고급정원의 한 테마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암석가든의 경우 고산의 식물상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암석지의 바위 혹은 암석의 공간에 식물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처리하는 것을 암석정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암석정원의 기본 테마는 돌과 식물 그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우선적으로 어울려야 더욱 효과적이다.



정원의
아름다움과
맛...

관상정원

우리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식물에서 찾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는 식물의 형태와, 색깔, 비율, 강도 등의 요소를 잘 고려해서 심어야 된다. 잘 심는다는 것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꽃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 잎과 줄기의 색깔 또는 무늬, 열매를 잘 이용한다는 것이다. 꽃은 식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일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잎과 열매 그리고 줄기의 색깔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9월에 피는 꽃과 잎, 줄기가 아름다운 식물을 몇 가지 소개한다.

꽃

Abelia x grandiflora

(꽃당강나무, glossy abelia)

인동과 당강나무속으로 키가 3m까지 자라는 반 상록 관목으로 가지는 늘어진다. 잎은 광택이 나고 꽃은 분홍색으로 모여 핀다. 꽃에는 약간의 향기가 있다. 정원에서는 경계수로 사용하면 좋다.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낮게 잘라 관리한다.



국화과 길쭉개꽃속으로 덩어리로 모여서 자라는 속근초이다. 잎은 얇게 갈라져 있고 꽃은 가장자리의 설상화는 흰색이고 가운데의 관상화는 노랑색으로 핀다.

**Ceratostigma willmottianum**

(월모티아눔세라토스티그마,)

갯질경이과 세라토스티그마속으로 키가 1.5m 이하로 자라는 낙엽 관목이다. 잎은 5cm정도 이고 가을에 빨강색으로 단풍이 든다. 꽃은 잎의 절반정도로 가지의 끝에 모여서 파랑색으로 핀다.

**Clematis terniflora**

(참오아리)

미나리아재비과 으아리속으로 낙엽지는 덩굴성 나무로 자란다. 잎은 작은 잎이 여러장 있는 복엽이고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며 색깔은 흰색이다.

Anthemis tinctoria 'Sauce Hollandaise'
(다이어스 캐모마일 '소스 홀랜드아이즈', dyer's chamomile 'Sauce Hollandaise')

Kniphofia rooperi

(니포피아, Rooper's red-hot poker)

1.2m까지 자라는 상록속근초이고 꽃은 수상 화서로 통형의 꽃이 많이 달려있으며 꽃은 밝은 붉은색으로 피었다가 가을에 노랑색으로 변한다. 잎은 가늘고 길며 끝은 휘어진다.

**Lablab purpureus 'Ruby Moon'**

(편두 '루비 문')은 콩과 편두속으로 덩굴지는 1년초이다. 꽃은 자주색으로 피며, 열매색 또한 자주색이다. 덩굴이 길게 자라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심을 수 있다.

**Lycoris radiata**

(석산, red spider lily)수선화와 상사화속으로 속근성 알뿌리식물이다. 꽃은 잎이 나기 전에 피고, 색깔은 적색이다.



잎

Acer 'Esk Flamingo'

(단풍나무 '에스크 플라밍고',

Snakebark Maple 'Esk Flamingo')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으로 낙엽 활엽으로 키가 크게 자란다. 잎에 관상점이 있고 흰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준다.

**Albizia julibrissin 'Summer**

Chocolate(자귀나무 '섬머 초콜릿')

콩과 자귀나무속으로 키는 크게 자라는 없지만 넓게 퍼지는 바가지의 형태로 자라는 교목이다. 꽃은 가지 끝에서 피고 색깔은 아래 부분은 흰색이고 끝은 분홍색인 것이 일반적이다. 잎은 고사리 잎처럼 갈라지고 자색의 잎이 특징이다.

**Elaeagnus pungens 'Mac-**

ulata(풍겐스보리장 '마쿨라타',

oleaster 'Maculata') 보리수나무과 보리수속으로 키가 4m까지 자라는 상록활엽관목이다. 꽃은 작고 흰색이며 향기가 난다. 짧은 가지에는 무딘 가지가 있다. 잎의 중앙에 밝은 노랑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다.

**Hydrangea macrophylla**

'Maculata'(수국 '마쿨라타')

범의귀과 수국속으로 키가 2m이하로 작게 자라는 관목이다. 꽃의 가장자리에는 곤충을 유인하는 무성화가 화려하게 피고, 가운데에는 유성화가 있다. 이 식물은 꽃보다는 잎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열매

Callicarpa dichotoma

(종작살, beautyberry)

마편초과 작살나무속으로 키가 작게 자라는 관목이다. 꽃은 보라색으로 피며, 열매 또한 보라색이다. 꽃과 열매는 작살나무보다 풍성한 편이다.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

buki(아웨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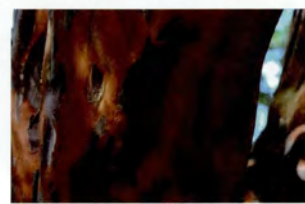
인동과 가막살나무속으로 키가 10m이하로 자라는 상록활엽교목이다. 열매가 붉은색으로 아름답다.



줄기

Lagerstroemia fauriei

(적피배롱, crape myrtle)는 부처꽃과 배롱나무속으로 낙엽지는 활엽교목이다. 꽃은 흰색으로 핀다. 줄기에 무늬가 있는데 적색과 암흑색의 색깔이다.



텃밭정원

배추

겨울철 먹을거리를 대비하고 수분이 많은 채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 먹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양념에 섞어 먹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다.

17세기 이전에는 한반도에 고추가 없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김치는 없었을 것이다. 17세기 이후에 고추가 일본에서 한반도에 전해진 이후 오이 김치에 고추를 넣었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배추김치가 김치의 주역이 되었다. 더불어 요즘 즐겨 먹는 총각 김치, 오이소박이, 석박지, 동치미 등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김치를 담그는 방법과 맛은 지역의 특색과 기후에 따라 다르다. 저마다 고춧가루와 젓갈의 종류, 양을 달리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김치는 젓갈과 생선을 충분히 넣어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북쪽 추운 지방에서는 고춧가루를 적게 쓰는 백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등이 유명하다. 또 호남지방은 매운 김치, 영남지방은 짠 김치가 특색이라고 한다.

기르는 방법

학명 : *Brassica rapa 'Pekinensis Group'*

영명 : *Napa cabbage* 한자명 : 대白菜(대배채)

재배 달력		
파종	아주심기	거두기
8월 말	9월 초-중순	11월 중

배추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500년 전부터 재배하여 김치로 담가 먹고 있다. 배추는 씨앗을 뿌려 모종으로 땅에 심는다. 씨앗을 뿌릴 때는 25구 트레이에 1~2개씩 넣어 주면 싹이 나오고 본잎이 4~5장 정도 되면 땅에 심으면 된다. 트레이에서부터 땅에 심고 나서 얼마 동안(배추흰나비가 사라질 때까지)은 한랭사를 씌워두면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특히 봄배추를 뿌릴 때는 한랭사를 꼭 씌워두어야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



한랭사 씌우기



다 자란 배추

갓

갓은 꽃잎이 네 장이고 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십자화과' 또는 '배추과'라고 부른다.

갓은 겨자의 한 변종으로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갓의 씨앗도 겨자라고 부른다. 갓의 씨앗은 우리가 보통 먹는 겨자보다 맛이 조금 부드럽지만, 겨자와 마찬가지로 양념을 먹을 수 있다.

갓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갓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씨앗을 줄부리기 하였다가, 본잎이 2~3장 되었을 때 속아주기를 하면 된다. 속아주는 간격은 갓의 잎이 서로 닿을 정도로 하면 된다.

기르는 방법

과명: 십자화과

학명 : *Brassica juncea* var. *juncea* (L.) Czern.

영명 : *leaf mustard* 한자명 : 芥菜(개채)

재배 달력		
파종	속아주기	거두기
9월 초	10월 초	11월 중순-말

무

무는 채소 가운데서도 음식에 쓰임새가 무척 많아서 배추와 더불어 가장 많이 먹고 많이 키우는 채소다. 그러나만큼 무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생태에 적응하여 우리 입맛에 맞는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는 서기전 400년경에 무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무를 심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와 삼국시대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 즉, 중국보다는 늦고 일본보다는 빠른 것으로 추정한다.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기르는 방법

과명: 십자화과

학명 : *Raphanus sativus* L.

영명 : *Radish, Daikon*

한자명 : 蘿蔔(라복)

재배 달력		
파종	속아주기	거두기
9월 초	10월 초	11월 중순-말

무는 로마시대 이전부터 유럽에서 재배되어 왔고,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또는 동남아시아라는 학설이 있다. 무는 뿌리채소로 물빠짐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란다. 땅에 골을 타고 물을 준 다음 씨앗을 직접 뿌리면 된다. 씨앗이 나고 10cm 정도 자라면 8~10cm 간격으로 속아주기를 한다. 십자 화과 채소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한랭사를 씌워주면 배추흰나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배추흰나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 한랭사를 걷어주면 된다.



토종무

쪽파

쪽파는 당질, 칼슘, 인, 철분, 각종 비타민 등이 많으며 파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서의 재배 역사도 꽤 길 것이다. 텃밭에서 흔히 키웠을 것인데, 상업적 재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치 재료이기도 하며 여러 음식에 양념으로 쓰인다. 생으로는 아리듯 매운맛이 있으며 익히면 단맛이 난다.

기르는 방법

과명: 백합과

학명 : *Allium x wakegi* Araki

영명 : *Scallion, green onion*

재배 달력		
알뿌리 심기	거두기	보관
9월 초	11월 초	다음해 8월 까지

쪽파는 양파(A. cepa) x 파(A. fistulosum)의 교배종이기 때문에 원산지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샐러드용으로 재배되었다. 9월에 알뿌리 상태로 몇 개씩 땅을 알뿌리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파고 15cm 간격으로 심고 줄 간격을 25cm 정도로 하면 된다. 11월 초에 수확하여 김장할 때 사용한다. 이때 알뿌리의 입을 잘 다듬어 양파망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다음 해 9월에 다시 땅에 심으면 된다.



알뿌리



자라는 모습



거두기

가든엔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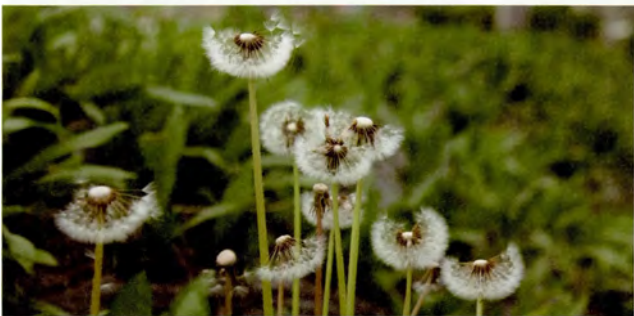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양

1. 씨앗 확산

모든 아이들은 여름에는 민들레 씨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불어서 씨앗이 하얀 솜털 낙하산처럼 떠다니는 것을 구경한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입으로 만드는 바람은 씨앗들을 분산시키고 이후 다음 세대의 민들레들이 자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바람은 씨앗들을 분산시켜 사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씨앗들은 다양한 생존 방법을 가지고 여러 크기와 모양으로 나온다.



- ▶ 도꼬마리 등은 갈퀴가 있는 털이 있어서 스쳐가는 동물들의 털에 붙는다.
- ▶ 단풍나무 등은 날개나 낙하산이 있어 공중으로 날아간다.
- ▶ 강 하류에 떠서 녹색 초원으로 간다.
- ▶ 먹음직스러운 더미로 나와서 새나 동물에게 먹고 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침전된다. 사실 몇몇은 새들을 너무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에 씨 머리를 덜거나 수확하는 시기까지 보호한다. 루드베키아(Coneflower)와 해바라기가 좋은 예이다.

대부분의 씨들은 일정한 시간에 수확되어야 한다. 만약 너무 빨리 수확을 하게 되면 저장소에 있는 배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성숙을 끝내기 위한 완전한 배젖을 가질 때까지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너무 늦게 수확이 되면 (이미 먹거나 날라 가지 않았을 경우) 썩거나 발아력을 잃게 된다. 식물을 매일 확인하게 되면 덜 익거나 과도하게 익을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씨앗들은 일찍 채집될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장소에서 익는 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식물들의 씨앗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익기 때문에 모든 씨앗들을 다 수확하고자 한다면 자주 식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종종 이런 식물들은 꼭대기에 활짝 핀 꽃의 보충한 부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 아래로 성장이 진행된다.

GardenIn TIP

- ▶ 꽃이 있는 식물의 경우, 꽃이 시들고 꽃잎이 떨어진 몇 주 후에 씨앗들이 건조된 경우 수확이 가능한 시기이다.
- ▶ 먹을 수 있는 열매 안에서 씨를 맺은 식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 수확되는 시기에서 1~2주 이상까지 식물에 남겨 두어야 한다.

2. 씨앗 수확하기

씨앗을 찾는다면 꽃을 확인해본다. 만약 수정이 되었다면 꽃이 핀 후 빠르게 시들거나 떨어지게 되고 씨 머리, 꼬투리, 열매, 난포, 씨를 위한 다른 공간을 남긴다. 씨앗들은 각각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알린다. 몇몇의 씨앗들은 익게 되면 꼬투리를 서로 맞부딪치며 소리를 낼 것이다. 대부분은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열매 안에 넣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씨앗들은 수확하기 전에 건조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슬이나 빗방울이 다 증발한 햇빛이 있는 날에 채종을 한다.



니젤라



심록패랭이



수레국화



차이브

- ▶ 만약 다년생으로부터 수확한다면 씨앗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은 식물을 약하게 만들고 수명을 짧게 만든다. 그러므로 씨를 채집하기 위해 몇몇의 식물들을 선별하고 나머지 시든 꽃을 잘라낸다.

- ▶ 수정된 꽃은 씨 머리, 꼬투리, 열매, 난포, 씨를 위한 다른 공간을 남기면서 빨리 시들고 떨어진다.

GardenIn TIP

- 분꽃, 쿡, 완두콩, 나팔꽃, 천수국의 씨앗들처럼 큰 씨앗들은 작고 섬세한 씨앗들 보다 채집하거나 적당하기 쉽다.
- 한해살이 식물의 씨앗들은 처음 씨앗을 받는 사람이거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적합하다. 식물의 주기가 1년 안에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씨앗을 채집하고 결과를 보는데 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다년생 식물들은 매년 씨앗을 만들어내지만, 완전히 성숙하고 난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
- 2년생 화초는 두 번째 해에 씨앗을 만들어 낸다. 2년생 야채들은 첫 해 겨울에 걸쳐 저장이 되어졌다가 그 다음 봄에 꽃을 피우거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심어진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식물이다.

3. 루드베키아(Black-Eyed Susan)

루드베키아는 곤충에 의한 타가 수분 식물이다. 만약 씨앗 저장에 위해 특정 품종의 순수 종자를 보존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의 종만 심는다. 만약 채집된 씨에서 나온 종이라면, 잡종이나 다른 재배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식물은 자가 파종을 할 수도 있다.

씨앗들은 꽃봉오리 중앙에 있는 원뿔형 열매에서 맺힌다.

이 원뿔형 씨앗 머리가 회색으로 변하고 느슨해지면, 씨앗이 다 익은 것인데, 그 시기는 보통 꽃이 지고 약 5-6주 후이다.



루드베키아 씨앗



GardenIn TIP

- 루드베키아는 다년생과 1년생으로 나누고 다양한 품종이 존재한다.
- 식물은 보통 봄에 파종을 하고 나면 첫 해에 꽃을 피운다.
- 루드베키아는 활력이 높은 씨앗들을 만드는 확률이 높다.
- 가을에 신선한 상태로 파종한 씨앗들이 가장 발아를 잘 한다.

루드베키아 씨앗정보

- 발아를 위한 빛: 발아를 위해서 빛이 충분히 필요하다.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22-28도
- 최저온도에서 발아 시기: 파종후 7일~14일
- 식재간격: 왜성종은 30cm 간격, 큰 품종은 60cm 간격
- 파종깊이: 살짝 흙으로 덮어주고 토양표면을 가볍게 눌러준다.
- 씨앗 저장 조건: 서늘하고 건조한 곳

씨 수확하기

가을에, 원뿔 모양의 열매가 회색으로 변하고 씨가 느슨해지게 되면, 손으로 씨를 잡아당긴다. 저장하기 1-2주 전에 말리기 위해 펼쳐 놓는다.



포트로 이식되기 직전의 트레이묘종



포트로 이식되어 자라고 있는 묘종

실내파종

1. 씨앗을 마지막 봄 서리가 오기 6주에서 8주 전에 실내에 파종한다. 씨를 촉촉한 모판이나 화분에 파종을 하고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비닐 랩을 씌운다.
2. 떡잎이 3-4장이 나오면 각각의 용기에 옮겨 심는다. 물은 옮겨심기 이후 규칙적으로 주고 물을 주는 사이에 흙을 건조 시킨다.

Nice to see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우리꽃연구소 URIS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

9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농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뒷밭정원활용록 101 저자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이어서 해가 짧아지기에 생장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미리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무와 배추를 파종한 것들이 잘 자라 정식하고 추비주고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 꽃들은 서서히 종자가 익어가서 채종 준비를 해야 한다.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 키우기 위해서는 가을인 9월-10월에 파종을 해야 한다. 또한 봄에 피는 구근식물 또한 가을에 심어야 한다. 여름 내내 열매 달린 것들은 점차 식물체가 시들어 간다. 그런 식물들은 자상 부위를 잘라 주어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정리한 식물체는 땅에 묻어 다시 거름이 되도록 하여 순환 농업하게 한다. 해가 짧아지기에 잡초도 그만큼 자라는 속도가 느려진다. 잡초는 재배되는 식물보다 덜 자라도록 유지되도록 잘 살펴보면서 키우면 잡초가 오히려 멸종효과가 생긴다.

강동구 고덕동 공동체텃밭

2014년 9월 7일



조



배추

2014년 9월 14일



고려영강귀 개화모습(곤드레나물)



개동작 개화



참취 개화



동면지 개화

2014년 9월 18일



상자재배모습 1,2,3



포대에 식재 1

포대에 식재 2

포대에 식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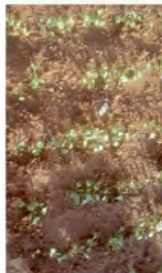
1. 맨드라미 개화
2. 오크라 개화
3. 자소 개화
4. 목화 솜
5. 목화 개화

월계동 길가 모습 2014년 9월 7일



강동구 고덕동 공동체텃밭

2015년 9월 10일



무 밭아 모습



맨드라미 개화



메리골드 개화

2015년 9월 21일



메밀 꽃



한련화 개화



다알리아 개화



아근 개화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축제 참가
2015년 9월 5일



베초향 개화



마



메론



모로헤이아



조롱박



맨드라미 꽃차 시음 행사



맨드라미 종자 나눔 행사

농촌사랑 모습

2015년 9월 9일



미니양배추3



보라색 무



미니양배추2



과일 무



맛배추



불암3호 배추



풍가루 물린 들깨꽃

달가루 물린 들깨꽃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식물을 키울 때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들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A. 식물의 이상 증세와 대처 요령

식물이 아프다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식물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니까요. 잎이 처지면서 시드는 문제만 해도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와는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는 흙 속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즉, 식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뭔가를 찾는 것은 그 식물이 자라는 장소의 환경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딱 꼬집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예요. 식물학 박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들을걸요.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식물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과 그 원인,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요약해 봤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유만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1. 잎이 아래로 축 처지고 시들었다.

- ▶ 물을 주지 않은 경우 → 물을 충분히 준다.
- ▶ 너무 자주 준 경우 → 이대로 계속 두면 죽을 수 있다. 부리를 꺼내서 썩은 부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 ▶ 너무 추운 곳에 둔 경우 → 서서히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2. 멀쩡해 보이는 잎인데도 자주 떨어진다.

- ▶ 물을 제 때 주지 않은 경우 → 물을 충분히 준다.
- ▶ 영양 부족인 경우 →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 ▶ 부리가 화분에 꽂 찬 경우 → 분갈이를 해준다.

3. 잎이 끈적거리고 얼룩이 생기며 반점이 나타난다.

- ▶ 병충해에 걸린 경우 → 알맞은 약을 사용해서 제거한다. 많이 상한 잎은 잘라낸다.



4. 뿌리와 줄기 아랫부분이 물렁거린다.

- ▶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은 경우.
- ▶ 여름과 겨울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었을 경우 → 두 가지 경우 모두 돌이킬 방법이 거의 없다. 상한 부위로부터 3cm 정도 떨어진 곳을 잘라 꺾꽂이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 단,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경우에는 꺾꽂이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5. 아랫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진다.

- ▶ 과습으로 인한 경우 → 부리를 꺼내서 썩은 부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 ▶ 잎이 너무 무성해서 잎 사이로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 →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큰 화분에 옮겨서 잎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

6. 잎 가장자리를 따라 갈색으로 타들어간다.

- ▶ 너무 강한 햇빛에 노출된 경우 → 그늘로 옮긴다.
- ▶ 건조한 공기 때문 →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물을 자주 분무해서 공중 습도를 높인다.
- ▶ 지나치게 영양분(비료 등)이 많은 경우 → 기존에 있던 흙을 반쯤 퍼내고 새 흙을 부어주거나 부리를 꺼내서 흙을 털어내고 새 흙에 다시 심는다.

7. 꽃이 피기도 전에 까맣게 말라 죽는다.

- ▶ 물 부족인 경우 → 물을 흠뻑 준다.
- ▶ 햇빛 부족인 경우 →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옮긴다.
- ▶ 흙에 영양분이 없는 경우 → 액체비료를 준다.

8. 새싹은 잘 나오는데 줄기 아랫부분의 잎이 자꾸만 노랗게 되면서 떨어진다.

- ▶ 잎이 오래되어 늙어 떨어지는 경우 → 잘라낸다.
- ▶ 줄기가 목질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 목질화되는 것을 즐긴다. 그게 싫다면 줄기를 잘라 꺾꽂이를 하면 되는데 부리가 내리면서 새 잎이 나온다.

9. 흙에서 벌레가 나온다.

- ▶ 여러 가지 원인으로 흙속에 벌레가 생긴 경우 → 흙을 모두 털어내고 새 흙에 분갈이 해준다. 지렁이도 실외라면 흙에 도움이 되어 좋지만 실내라서 꺼림칙한 느낌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10. 잎이 뜨거운 물에 삶아 놓은 것처럼 변했다.

- ▶ 차가운 공기에 직접 닿아 냉해를 입은 경우 → 상한 잎은 잘라내고 서서히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11.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면서 키만 크다.

- ▶ 햇빛이 부족한 경우 → 서서히 밝은 곳으로 옮겨준다.



12. 잎의 뾰족한 끝부분이 갈색으로 타들어간다.

- ▶ 너무 건조한 곳에 둔 경우 → 잎 끝을 잘라주고 물을 자주 분무해 주면서 공중습도를 높여준다.
- ▶ 추운 장소에 둔 경우 → 서서히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 ▶ 영양분(비료 등)이 너무 많은 경우 → 타들어가는 증세가 심하다면 흙을 모두 털어내고 새 흙에 심어준다.

13. 잎 전체가 누렇게 변했다.

- ▶ 잎이 오래된 경우 → 시든 잎과 줄기는 잘라낸다.
- ▶ 화분에 부리가 너무 많은 경우 → 분갈이 해준다.

▶ 나무 강한 빛을 본 경우 → 그늘로 옮겨준다.



14. 벌레가 너무 잘 생긴다.

▶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 → 잎을 닦아주고 분무기를 이용해 수시로 물을 뿌려 습도를 높여준다. 증세가 악할 경우 화장실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 없애고 심할 경우에는 알맞은 약을 사용해 제거한다.

15. 갑자기 잎이 후두둑거리며 떨어진다.

▶ 급작스럽게 환경이 바뀐 경우 → 물 관리를 잘하면 다시 새잎이 돋는다.

16. 잎이 무성하는데 꽃이 피지 않아요.

▶ 햇빛이 부족한 경우 → 밝은 곳으로 옮긴다.

▶ 흙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경우 →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기다리면 꽃이 핀다. 비료를 줄 시기에는 질소보다 인산과 칼리의 성분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 화분에 부리가 꽉 찬 경우 → 분갈이 해준다.

17. 잘 자라다가 여름에 사들어 버렸다.

▶ 무더위 때문에 갑자기 식물의 부리가 썩은 경우 → (완전히 죽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부리가 있다면) 부리를 꺼내 상한 것은 잘라내고 새 흙에 심어준다.

▶ 지나치게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 흙을 모두 털어내고 새 흙에 분갈이 해준다.

▶ 물빠짐이 잘 되지 않는 경우 → 마사토를 섞은 새 흙으로 분갈이 해준다.

18. 뿌리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 화분에 부리가 꽉 찼버린 경우 → 분갈이 한다.



19. 줄기가 점점 가늘고 현약해진다.

▶ 햇빛이 부족한 경우 → 서서히 밝은 곳으로 옮겨준다.

20. 잎에 윤기가 없다.

▶ 잎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경우 → 잎을 닦아준다.

▶ 부리가 화분에 꽉 찬 경우 → 분갈이 해준다.

▶ 너무 추운 곳에 있는 경우 → 서서히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더하고 싶은 말〉

1. 한번 상한 잎과 줄기는 회복되지 않으니가 가위로 깨끗이 잘라주세요. 하지만 잎이 말라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식물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부리는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다시 새잎이 나오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켜보세요.

2. 위 내용에서 '서서히'라는 말은 식물이 시간을 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서서히 밝은 곳으로 옮겨준다.'라는 말의 뜻은 음지에 있던 식물을 갑자기 양지로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하루씩의 차이를 두고 음지(그늘진 곳) → 약간 더 밝은 곳 → 좀더 밝은 곳 → 아주 밝은 곳으로 옮겨주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사람처럼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해버리거든요.

B. 독성이 있는 식물과 위험한 식물, 이산화탄소 문제

〈1〉독성이 있는 식물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방송이 되면서 제 블로그의 문지방이 달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질문공세를 퍼부은 적이 있는 문제랍니다.

실내 식물 중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이비, 디펜바키아('마리안느' 또는 '안나'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음), 수선화-톨립 등의 알뿌리 식물, 크로톤, 란타나, 유포르비아(실락초, 포인세티아 등), 꽃무릇(=석산), 석화(=사막의 장미), 꽃무릇(=석산) 등이 있는데, 모두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등의 신체 접촉만 없다면 절대로 그 독성이 사람에게 옮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집에서 많은 식물을 기우는 사람들, 무엇보다 저희 집 식구

들, 특히 제가 딸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을까요? 식구들에게 한 번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입으로 가져가서 확인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아기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면 되겠지요.

〈2〉위험한 식물

특별히 어떤 성분 때문에 위험한 식물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제 주위의 다른 분들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철과 유카, 가시가 길고 굵은 선인장의 경우 몸을 잘못 움직였다가 큰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잎이 보죽하고 딱딱해서 사람의 몸을 찌르기 쉬운데 특히 눈과 관계된 부위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아이들이 좀더 자란 후에 키우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3〉식물에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문제



식물이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밤에는 내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식물을 두면 잠을 잘 동안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식물이 낮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밤에 내보내는 양은 서로 아주 많이 다르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면, 식물이 낮 동안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주 높지만, 밤에는 호흡만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해요.〈실내 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중앙생활사, 손기철 지음, P.51) 다시 말해, 실내에 식물을 두면 밤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면 한 방 안에 큰 화분이 서너 개씩 되는 우리집 식구들은 다 병원에 갔게요?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마세요. 그래도 짚짚하다면,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과 같은 식물을 두세요. 자,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조연의 아름다움

안개꽃(대나물)속(Genus Gypsophila)

장미는 안개꽃로 받쳐주어야 더 아름답다. 코사지는 안개초로 인해 완성된다. 신부의 부케도 안개초의 힘으로 더 신비로워진다.

안개꽃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꽃이다.

그러나 분화나 정원에서도 주로 꽃꽂이용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

일년생, 초본과, 반 상록성이나 상록성 다년생 식물의 100종 이상의 속이다.

그리고 목질부를 갖거나 쿠션 혹은 매트형의 모양을 갖는다. 이들은 동쪽 지중해에서 카프카스 산맥, 중앙아시아, 북쪽과 서쪽 중국의 고산지역, 건조하고 돌이 있는 비탈길이나 모래와 대초원의 알칼리 토양에서 자란다. 한국에도 자생하는데 대나물은 주로 바닷가의 건조한 암벽이나 사면 등에서 여름한철 하얗게 피어난다. 최근 도로가의 사면에 씨드스프레이에 의한 파종으로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작고 5판으로 된 흰색 혹은 분홍색의 별모양에서 약간 트럼펫 모양의 꽃으로 평가되며 단생하거나 원추꽃차례에서 피진 형태로 핀다.

얇은 창형에서 가는다란 창형 모양의 녹색색의 잎이 있으며, 대생의 짝으로 난다.

키가 큰 일년생 종은 가장자리 식물로 유용하고 절화용으로도 좋다.

고산식물 종은 높은 석축이나 시멘트 옹벽, 암석정원이나 고산식물원 혹은 잔돌이 있는 모퉁에 적합하다.

완전히 내한성을 지닌 것부터 서리에 내한성을 지닌 것이 있다.

재배는 되도록 물 빠짐이 좋은 밤을 햇빛 아래 알칼리성이며 토심이 깊으면 좋다.

비록 핑크색의 숙근안개초 *Gypsophila 'Rosenschleier'*의 경우 축축한 토양에서 자랄 수 있어도 대부분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싫어한다.



증식은 봄에 일년생 식물의 종자를 직파하여 뿌린다. 다년생 식물의 종자를 겨울에 기온이 13~18℃일 때 파종하거나 봄에 냉상에 파종한다. 다년생 식물을 뿌리 줄기나 줄기를 삼목 겨울에 증식을 한다.

해충 및 질병은 우선 여름철 혹은 물 빠짐이 나쁜 곳에서는 줄기가 썩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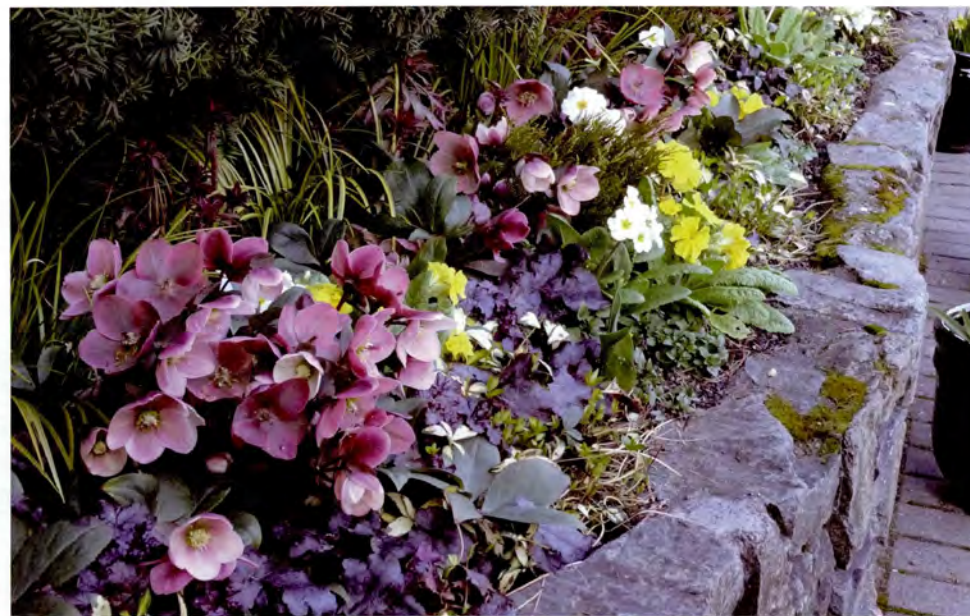
세상에서 잎이 제일 큰

군네라 속(Genus Gunnera)

세상에서 잎이 크기로 소문난 친구는 나뭇잎이 아니다. 초본형의 식물로 우리나라의 초본 식물종 중 대형인 장근물(*Rheum coreanum*)과 넓은 군네라라는 특이 식물이 있다. 여름에 개화하고 지하경을 갖는 초본이나 상록성 다년생 식물의 45여 종의 속으로 남아프리카, 호주, 남미의 물기가 있는 지역에 있다. *Gunnera*는 매트를 형성하는 작은 크기부터 아주 커다란 줄기에 커다란 잎을 가져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비록 몇 종은 화경과 종자가 아름답지만 원래는 대형의 보기 좋은 잎을 보기 위해 재배되었다. 잎은 둥근형에서 난형, 가끔 심장형, 약하게 갈라진 형이거나 일반적으로는 톱니 형이다. 작고 녹색을 띤 꽃은 뽀뽀하고 직립한 덩굴같은 화경 혹은 원추꽃차례에서 나고, 대부분의 꽃은 보통 암꽃이고 가장 위는 수꽃으로 간혹 두개의 성을 모두 지니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종은 낙엽성이다. 작은 종이 암석화단이나 고산 식물원에 적합한 반면, 큰 종은 호수나 개울 혹은 습지 정원의 가장자리의 장식식물로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큰 화분에서 길러야 한다. 화분에 심은 상태로 5월 이후 외부 연못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고 10월 온도가 내려가면 반드시 밝은 온실로 옮겨 재배해야 한다. 깊고 축축한 부식토가 많은 토양에 햇빛이 좋은 태양 아래 혹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큰 종은 봄에 기저부의 싹을 잘라주어서 증식을 시킨다. 작은 종은 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

민달팽이와 달팽이로 인해 야외에서는 피해가 많고 온실에서는 진드기와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가 있다.



겨울에 피는 꽃, 크리스마스роз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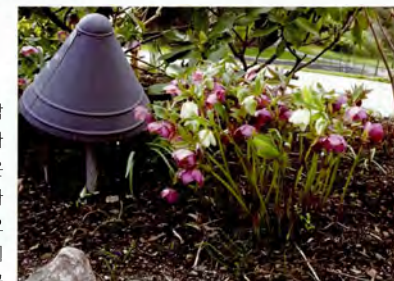
헬레보루스 속(Genus Helleborus)

크리스마스роз라는 겨울 꽃 헬레보루스는 15 종의 다년생 식물이 속한 속이다. 보통 백악이라고 하는 분필형의 암석이나 석회암 토양 혹은 돌이 많은 관목림, 삼림지, 풀이 우거진 곳에서 발견된다. 중앙 유럽, 동유럽, 서유럽에서부터 서아시아까지 분포한다. 지하경이 있으며 덩어리로 뭉치는 낙엽성의 기저 잎과 관목과 같은 잎이 무성한 2년생의 줄기를 가진다. 잎은 열편 모양이거나 완전히 소엽으로 갈라졌고, 흔히 발모양이다. 일반적으로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와 잎 표면은 가죽 같으며, 짙은 녹색 빛을 띤다. 대부분의 종에서 키가 45cm에 달하고 꽃은 꽃대의 줄기 끝에서 수서를 이루며 피어나고 꽃잎 아래 잎 모양의 포가 달려 꽃을 받쳐 준다. 꽃은 자생지에서는 늦겨울에서 한여름 사이에 개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와 따뜻한 바다주변 지역 외 내륙에서는 4월이 되어야 꽃을 피운다. 꽃의 색은 흰색, 담황색, 분홍색, 보라색, 녹색이고 때때로 얼룩이 있다. 매달린 형태로 혹은 나팔 모양 바깥쪽을 향하고 모양은 접시나 컵 모양으로 생겼거나 또는 종 모양이다. 개개의 꽃은 5개의 화피 조각, 수많은 수술, 2-10개의 개방 심피를 가진다. 크리스마스роз는 활엽수의 혼합림 또는 관목 정원에 집단으로 심거나 축축한 부엽이 많은 활엽음지에 이식되었을 때 효용이 좋다. 작은 종은 락가든에 이상적이다. 식물체 전체는 먹으면 심각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역즙은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을 일으킨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결빙에 내성이 있다. *Helleborus*는 높은 습윤지와 비료성분이 많은 부식질토양을 견디지만 이상적인 재배 요건은 다양하다. 참조를 위해 이들은 다음과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그늘이 있는 중성~알칼리 토양.
2. 그늘이 있는 점토질 중성~알칼리 토양.
3. 햇빛이 충분히 들거나 그늘이 있는 중성~알칼리 토양.
4. 부분적으로 그늘이 있는 토양, 가끔적인 산성 토양.

심을 때에는 발효된 잎이나 유기물을 섞고, 매년 가을에 뿌리덮개로 덮어준다. 모든 그룹에 대해 마르거나 침수되는 토양은 피하고 강하고 차가운 바람은 막아주어야 한다. 증식은 종자는 익자마자 용기에 뿌린다. 좋은 품종은 영양번식으로 하는데 개화 후, 이른 봄이나 늦은 여름에 분주한다. *H. foetidus*와 *H. argutifolius*는 분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로 키우는 것이 좋다.

해충 및 질병은 달팽이, 진딧물, 흑반병 등이 있다.



Special Issue

가을은 그라스의 계절

이제 그라스는 국내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봄부터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는 정원 속의 필수소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어떤 꽃보다도 기품있고 품위있는 초형과 호리호리한 화서와 줄기, 색깔 있는 잎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특히 가을은 많은 그라스류가 절정의 기운을 뽐내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런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이 유망한 종을 중심으로 현장적용 예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라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무늬염주그라스

그라스 중 가장 하얀색의 잎을 가진 종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생육이 극히 불량하거나 휴면에 들어가지만 서늘해지는 가을과 봄에는 매우 밝은 하얀색을 보여준다.



진디밭을 경계로 라인식재되어 있는 모습



패랭이류와 혼성식재 되어 붉은색꽃과 하얀색 잎이 조화롭게 색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역새 모닝라이트

잎이 가늘고 긴 역새로 잎의 선형이 아름답고 전체적인 초형도 안정적인 역새



만장된 초형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선형의 잎과 붉은색 꽃대가 고급스런 모습을 보여주며 열식되어 있다.



큰 화분 중앙에 역새 모닝라이트가 식재되어져 있고 하 임식각기에 포인트 식물로 한포기가 자리잡고 있다. 부에 일년초로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상록갈사초

진한 초록빛의 브론즈색으로 흐르는 머릿결 같은 품이 고급스럽다. 대형화분에 재배하여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으며 특히 특별한 공간 연출에 최적의 소재이다.



박람회장에서 메인식물의 외곽라인에 부소재로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식물원에 길경계선으로 정식되어져 있다.

파니콤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잘 어울리는 그라스로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지하경을 뺀 번식하고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분홍색 예기나 혼성식재 되어있는 모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라스화단 뒤쪽라인에 파니콤이 고급스런 파랑색 잎과 은은한 하얀 꽃투리와 멋진 경관을 연출하며 열식으로 식재되어있다.

혼합식재 화단에 식재되어 비온뒤 아름답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파니콤.

아이스댄스

가죽과 같은 혁질의 잎에 크림색의 무늬가 뛰어나고 겨울에도 상록이며 내음성이 좋아 활엽수 아래 지피용으로 좋습니다.



암석가든에 난과 같은 초형의 아이스댄스가 들쭉으로 식재되어져 있다.

역새 그린라이트

그린색의 초형이 아름답고 가늘고 긴 선형의 잎이 멋스러운 경관을 보여준다.



보행로 계단 옆으로 열식되어 있는 경관

대사초 골드라이트

음지의 좋은 소재로 황금색무늬가 강렬하고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여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좋다.



수목아래 음지에 옥잠 엘레강스가 식재되어있는 모습. 골드라이트의 황금색과 엘레강스의 블루색이 아름다운 색감대비를 이룬다.

무늬역새

대형의 그라스품종으로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 역새이며 단독, 군식, 혼식, 혼성 식재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그라스로 조성한 화단으로서 무늬역새 포인트로 반복되어 식재되어 있다.



무늬역새가 암석가든에 포인트 식재되어 있는 모습

털수염풀

그라스 중 대체로 빠른 봄에 효과적이며 꽃이 피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군식하거나 열식하는 대형군락의 형태가 아름답다.



무지개 화단에 한 소재로서 털수염풀이 식재되어 멋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도로변 교통섬에 무늬역새, 폴리니아, 털수염풀로 화단을 조성. 가운데 무늬역새와 폴리니아를 식재 하고 가장자리에 털수염풀을 식재하여 만개한 모습

하코네클로아

하천이나 연못가에 심으면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음양지 모두에 잘 적응하고 그늘지역을 아주 밝게 해준다.



정식되어 있는 하코네클로아 사이에 상록잔디패랭이가 에워싸며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빨강꽃과 노란색잎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녹색의 상록수아래 마치 황금색 물결이 일렁이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무늬글리세리아

수변과 습지, 수중 어디서나 생육이 가능한 무늬종 식물이다. 무늬가 가을까지 좋아 이들 만의 군식도 유리하다.



무늬글리세리아는 수중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수중식물로 물 속에 식재되어 있다.

억새 리틀제브라

앞에 가로로 호피무늬가 있고 일반 호피억새에 비해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라스 화단 중간중간에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삼색조팝과 변갈아 식재되어 있는 모습. 물, 여름에는 삼색조팝의 잎과 꽃을 감상하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억새 리틀제브라를 변갈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파란김의털

앞의 질감이 좋고 햇빛이 좋은 배수가 잘 되는 건조지용으로 좋다. 질서있는 열식과 군락 식재에 좋다.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식재되어있는 모습. 청색의 느낌이 매우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억새 파랑새

키가 작은 억새로 잎 전체적용 블루톤의 질감이 좋고 군식, 열식, 포인트 식재 등 어디에 적용가능하다. 키가 작아 쓰러짐 없이 화단 식재 시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블루톤의 잎은 질감이 좋아 피기전에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키가 큰 무늬억새 사이로 키 작은 억새 파랑새가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내뿜고 있다.

에버글드

상록성의 크림색 무늬가 좋아 분화용으로 혹은 조경용으로 뛰어나다. 건조한 숲의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소나무 아래도 생육가능하다.



에버글드의 무늬와 늘어지는 형태적 장점을 살려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심어 배치한 모습



암석가든의 돌담에 포인트식재한 모습

홍 라

붉은 잎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고급정원에 많이 이용된다. 강한 결속력으로 지피용으로 최상이다.



청계천변에 앞쪽에는 녹색으로 종새풀이 깔려있고 그 뒤쪽으로 붉은 색의 홍 라가 열식되어 있다.



그라스화단 앞쪽에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다.



계류주변 돌틈에 식재되어 있는 홍 라.

흰줄무늬대사초

잎의 외곽에 흰줄무늬가 있고 음지의 좋은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해도 강하여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적용 가능하다.



암석가든의 돌틈사이에 돌과 어울리게 식재되어 있다.



나무아래 음지 사면에 군식되어 있는 흰줄무늬대사초

사초 아우레아

황금무늬가 아주 고급스러운 양지 및 반음지 식물로 낮은 물가에 식재가 가능한 사초이다.



수중식물로 얕은 물속에 심겨져 있는 모습



연못의 돌틈사이에 얕은 물속에 다른 수변식물과 어울려 심겨져 있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규격

* 부가세 별도

구분	규격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600,000
	1,000×1,000×400	700,000
	1,000×1,000×600	800,000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광주 5.18 민주광장



광주 5.18 민주광장



인죽면사무소



군포 철쭉축제



구로 고척스카이돔 부근



광주 봄꽃전시회



강동 도시농업박람회



일산 식생활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강동 도시농업박람회



산청산림박람회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

흰 꽃이나? 분홍이나? 빨강의 열매를 곁들여!

겨울에 더 아름다운 백자단(홍자단)

글 사진 편집실



는데 이들은 대부분 포복형 혹은 덩굴형관목이다. 많은 종들은 하양의 꽃을 피워 백자단이라 할 수 있다. 홍자단과 백자단은 어찌보면 같은 말이다. 처음에 도입한 분들이 지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흰 꽃이 피고 포복형인 것은 백자단의 특징이 있고 약간의 핑크색을 머금은 홍자단은 약간 덩굴형이다. 따라서 코토네아스터라는 학명의 명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로 우리의 도로분리대, 석축옹벽 등에 유리하고 띠늑지 등에도 덩굴형을 이용하면 좋다. 품종에 따라 약간의 내한성 문제가 있지만 이미 서울의 겨울은 많이 따뜻해 식재이용 가능하다. 특히 바람이 막힌 곳이나 햇빛이 좋은 곳은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한다. 이

우리는 홍자단과 백자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들은 주로 분재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긴 줄기와 좋은 맹아력, 하양, 혹은 핑크빛 꽃 그리고 겨울의 열매까지 전 계절을 두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학명은 *Cotoneaster dammeri*(백자단)로 대표되는데 중국과 유럽이 원산인 상록의 관목이다. 주로 석회암지대의 높은 산에 자생하는데 너무 건조한 겨울은 싫어한다.

Cotoneaster horizontalis(홍자단), *Cotoneaster pr. 'Queen of Carpets'*(백자단), *Cotoneaster salicifolius*(백자단)의 종들이 있



지는 용도로 이용가능하다.

만약 겨울이 끝나고 윗부분의 줄기가 동해 혹은 건조에 의해 말랐을 경우 전체를 제거하지 말고 생울타리를 정리하듯 해 주면 봄부터 매우 빠르게 자라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다. 녹색의 카펫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이 빠른 덩굴형과 포복형의 경우 둘 다 아치나 터

때는 빨강의 단풍색과 함께 익어가는 열매는 일품이다. 더욱이 포복형인 *Cotoneaster dammeri* 'Major', *Cotoneaster pr. 'Queen of Carpets'* 등은 완벽한 포복 형으로 중앙분리대 혹은 감추고 싶은 벽면이나 석축위에 심어 늘어트리거나 포복형의 지피식물로 매우 유리하다.

더욱이 겨울의 빨간 열매는 아름다움과 함께 철새들이 좋은 먹잇감이다. 건조하지만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심고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덩굴형은 군식 후 모양을 다듬어 주는 방식과 돌 틈 식재와 지피식물로 유용한 식물이다.

혹여 내한성이 문제가 있는 품종은 겨울에 약간의 보온을 해 주어야 한다. 또 이들은 늘어지는 줄기를 가졌지만 벽체를 타는 것 보다는 아래로 처



화려한 신품종 관목

무궁화 겹꽃시리즈

- 겹꽃으로 매우 화려한 무궁화 품종입니다.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입니다.
- 테마정원으로 무궁화원을 조성할 때 안정맞춤입니다.



라벤다시몬

브라벳



화이트시몬

차이티시몬

핑크시몬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이명호의 아생화

기생생활로 살아가는 희귀식물 구상난풀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아생화
http://www.skyspace.pe.kr



기생식물의 의미

식물이면서도 스스로 양분 합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식물을 기생식물이라 한다.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하는 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 한다면, 이 식물들은 모두 종속영양생물이 되는 것이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물에는 어디에도 녹색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종류의 식물들은 숙주식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양분을 받아먹는 전기생식물(全寄生植物)들인데, 생물의 사체나 그 분해도상의 것, 배설물 등을 영양원으로 하는 사물기생식물, 즉 부생식물에 속한다.

부생식물의 의미

동식물의 고사체나 배설물 또는 이것들이 분해되어 생긴 유기물을 생활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하는 식물을 부생식물(腐生植物, saprophyte)이라고 한다. 광합성 능력이 없어서 기생생활을 한다는 특징을 갖지만, 죽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면서 생성된 유기물들을 영양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물질순환상 분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자연계의 그 많은 사체나 배설물을 과연 어찌 청소할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생태계에 중요한 분해자의 역할을 통해 물질순환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루발과의 4종류 비교 특징

노루발과에는 4가지 기생식물 종류가 있다. 모양은 전부 비슷하게 생



구상난풀

겨 있지만, 잘 관찰하면 조금씩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들을 두 무리로 크게 분류하면 구상난풀 종류와 수정난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두 종류는 모두 추석 무렵인 8~9월에 꽃이 피는데, 구상난풀(*Monotropa hypopithys* L.)은 몸의 색깔이 연한 황갈색이고 수정난풀(*Monotropa uniflora* L.)은 수정처럼 맑은 흰색이다. 몸 전체는 흰색이고 암술머리만 노란색을 띠고 있는 수정난풀을 일명 '수정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닮았지만, 같은 식물이 아니고 좀 다른 식물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인 '나도수정초'와 '너도수정초'라는 식물이 있다. 나도수정초(*Monotropastrum humile* (D. Don) H. Hara)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6월 초에 피면서 몸 전체는 흰색인데, 암술머리만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유난히 돋보이는 꽃이다. 또한 너도수정초(*Monotropa hypopithys* var. *glaberrima* Hara)는 이름은 수정초 쪽이지만, 특징은 구상난풀 쪽이라 할 수 있다. 구상난풀은 몸이 황갈색이며 털이 많은데 비해 너도수정초의 몸에는 털이 없다. 꽃색은 구상난풀과 같은 황갈색이지만 몸에 털이 없어서 반들반들 광택이 있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피는 시기는 6월 말과 7월 초순이다. 즉, 수정난풀과 친한 쪽은 나도수정초이고, 구상난풀과 친한 쪽은 너도수정초라 할 수가 있다.

꽃이 아래로 피고, 열매는 위로 달리는 특징

노루발과의 식물들은 꽃과 열매가 달리는 방향이 다르다. 꽃이 처음에는 땅을 보고 피지만 차츰 옆을 향하게 되고, 꽃이 지면서 차츰 고개를 들어 올리다가 열매는 똑바로 하늘을 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마치 할미꽃이 땅을 향하여 꽃이 피지만, 열매는 똑바로 하늘을 보며 달리는 특징과도 같은 것이다. 노루발과의 식물들 중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식물인 구상난풀과 수정난풀도 노루발 종류의 다른 식물들과 공통 특징을 갖는다. 노루발과의 식물에는 대표적인 노루발을 비롯해서 매화노루발, 봉황노루발, 호노루발, 홀꽃노루발, 새끼노루발, 공팔노루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광합성을 하여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는 식물들이다.

구상난풀의 특징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부생식물이다. 구상나무 숲 속에서 자란다는 뜻에서 구상난풀이라 부르게 되었다. 생육환경은 빛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엽록소는 없고 식물 전체가 연한 황갈색을 띤다. 줄기는 높이 10~20cm 정도이고 육질로 된 원기둥 모양이며 잔털이 나 있다. 잎은 어긋나고 비늘 모양이며, 불규칙하고 톱니가 있다. 보폭한 잎이 퇴화된 비늘처럼 생겨서 20~30개가량 있으며, 길이는 1~1.5cm, 폭은 0.5~0.7cm 정도이다. 밑부분의 잎은 작고 백백이 나지만 윗부분의 것은 크고 성기게 붙는다.

구상난풀의 꽃과 열매

꽃은 줄기 끝에 총상으로 달리며 연한 황백색이다. 8~9월에 종 모양으로 달리 아래를 향해서 피며, 수술은 8개이고 암술은 적갈색을 띤



나도수정초



너도수정초



수정난물

다. 햇볕을 받으면 황갈색의 꽃 부분이 검게 변한다. 꽃받침잎은 거꾸로 세운 피침형으로 길이 1~1.2mm이고 열매가 커지면서 떨어진다. 꽃잎은 4개로 뺨기형 비슷한 긴 타원형이고 길이 1~1.5cm이다. 열매는 9월경에 둥글게 달리고 끝부분에 암술대가 남아 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속 및 전국의 소나무 군락 아래에서 자란다. 너도수정초는 구상난물과 같지만, 몸에 털이 없으며, 꽃이 피는 시기가 6월 말이나 7월 초순인 점이 다르다.

수정난물의 세부 특징

전국의 산지 숲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며 부생식물이다. 구상난물과 수정난물은 부생식물의 양대 산맥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에 부엽질이 풍부하고 반그늘 혹은 음지에서 자란다. 키는 10~20cm이고, 잎은 비늘과 같은 것이 퇴화되어 어긋나며 긴 줄기를 이루고 있다. 꽃은 8~9월에 피고 길이 1.5~2.5cm, 폭이 1.4~1.8cm로 종형이며 흰색이다. 긴 줄기를 따라 끝에 1개씩 아래를 향해 달리고, 각각의 꽃은 포엽에 싸여져 있다. 꽃받침잎은 1~3개, 꽃잎은 3~5개이다.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둥근 모양으로 길이가 2.5cm, 폭은 2cm가량이며, 종자는 타원형으로 길이 0.5~1mm, 폭 0.5~1mm로 아주 작다. 수정난물은 염록소가 없어 식물체가 전체적으로 희며, 마르면 검게 변한다. 수정난물·수정초·수정초·석장초 등의 별칭이 있다. 수정난물은 암술머리가 황색이지만, 너도수정초는 암술머리가 청색이며 꽃이 6월 초에 일찍 피는 점이 다르다.



용도 및 번식법

햇볕이 들면 잎이 거뭇해지고 마르기 때문에 원예용으로 키우기가 어렵고 조건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여 쉽게 볼 수 없는 식물이다. 9월경에 달리는 종자를 낙엽수 아래에 바로 뿌린다. 종자는 바로 뿌려야 하며, 보관한 후 뿌리게 되면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번식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생식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는 불가능하며, 외에서 키울 때는 햇볕이 강하게 들지 않는 낙엽수 아래에 심는다. 물은 3~4일에 한 번씩 주며 직접적으로 물이 줄기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는 열이 나고 갈증에 심할 때 약재로 쓰기도 한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새싹이 올라오면 포기나누기를 하고, 8~9월에 익은 종자는 한 송이에서 약 30~40개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을에 뿌리거나 이른 봄에 뿌리면 많은 새싹을 얻을 수 있다. 물기가 많은 반그늘에 심어 기른다.

정원도구 특가 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자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샐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⑨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키작은 반음지의 연중개화종

스텔라원추리

원추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꽃이다. 주위의 도로변, 화단 등에 심겨진 원추리, 왕원추리 등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꽃이 좋아 조경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씩 보급,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원추리(*Hemerocallis*)류는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조경용으로 매우 주요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소재이다. 그리고 원추리류는 대부분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소재로 그 활용 폭이 넓다.

이번에 소개할 스텔라 원추리(*Hemerocallis hybr. 'Stella Doro'*)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추리류가 여름에 개화하는데 비해 스텔라원추리는 5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장기 개화하는 품종이어서 다른 어떤 품종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키는 약 30~50cm정도 자라고 번식이 빨라 식재 후 1년만 지나도 분얼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화색은 노란색인데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준다. 꽃이 탐스럽고 많은 꽃대가 풍부



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꽃이 장기 개화되므로 주로 혼합식재 시 양쪽식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고 도로변이나 화단 등에 군식하여도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 좋다. 극음지의 경우 생육이 불량해지지만 어느 정도 일조량이 유지되는 활엽수 아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호스타 등 음지식물과 함께 식재해도 잘 어울린다. 또한 물과도 잘 어울려 계류주변에 노루오줌, 그라스류 등과 잘 조화를 이루며 식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키가 작고 기르기 쉽기 때문에 화분 등에 담아서 가정에서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소재이다. 번식은 분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꽃을 많이 피우는 다화성식물이므로 퇴비를 많이 해주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병충해의 경우 다른 원추리류와 마찬가지로 꽃대를 중심으로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 외에는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잘 자라는 소재이다.



Q&A

Q: 툼립구근은 가을 언제 식재하는 것이 좋은지요?

A: 일반적으로 툼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10월에서 11월 사이 땅이 얼기전 까지 식재해주면 됩니다. 단지 툼립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이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해서 국내에 10월 20일 이후에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툼립은 10월 20일 이후에나 식재가 가능합니다. 식재시 주의할 사항은 깊게 심어주어야 하고 봄 건조가 심해지면 반드시 관수를 해주어야 4월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물기 많은 수변의 잔디대용식물 카펫주름잎



우리나라의 누운주름잎(*Mazus miqueli*)은 다년초로서 포복지를 내며 번식하지만 밀도가 약해 조경에 널리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카펫주름잎(*Mazus reptans*)은 카펫처럼 밀도가 좋으며 답압에도 아주 강한 특성이 있어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수변 혹은 습기가 많은 장소의 피복식물로 매우 유망한 소재이다. 카펫주름잎은 꽃이 흰색과 보라색 2종이 있으며 새순 끝과 겨드랑이에 꽃을 내는 식물로 꽃이 오래가고 답압과 그 조밀성이 잔디를 능가하므로 새로운 현장 적용을 설계할 수 있다. 키는 3~5cm 정도이며 포복지를 내어 사방으로 뻗고 땅에 닿는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묘기를 형성한다.

습기에 매우 강하고 뿌리의 발달이 좋아 토양의 매트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꽃은 5월에서 8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개화하며 만개시에는 보라색과 흰색의 카펫을 연상하게하며 흡사 꽃잔디를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잎은 보라색 종이가 더 녹색을 많이 띄고 흰색 종이는 연녹색의 잎을 가진다. 잎의 모양은 아주가 모양으로 그 크기는 겨우 3cm 정도로 작고 마디는 매우 조밀하다.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며 병충해가 별로 없어 관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

이 식물은 골프장 등의 물기가 있어 잔디가 잘 자라지 않거나 수변지역에 잔디밭처럼 녹색의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매우 좋은 소재이며 회복능력과 피복능력이 뛰어나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므로 빛이 조금 드는 나무아래의 피복용이나 건물음지 등의 피복용으로 매우 유리한 품목이다. 양잔디보다도 답압에 견디는 힘이 월등함도 매우 좋은 장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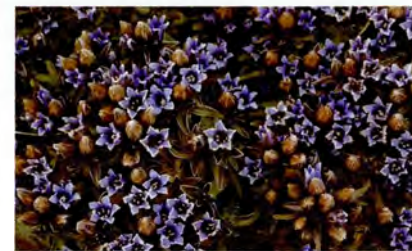
3. 암석가든용 식물

가장 늦은 가을까지 보석 같은 꽃을 피우는 하늘응달



하늘응달은 지금까지의 응달과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특성을 가진 식물이다. 키는 10~20cm로 작고 잎에 윤기가 있으며 마디의 절간이 매우 적다. 여름하고가 없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생육은 매우 강건한 식물

이다. 건조지나 약간의 습지에서도 잘 자라 일반적인 산용담이나 칼암용담, 큰용담 등 꽃이 덜 아름답거나 생육이 나빠 조경에 잘 이용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잎의 모양, 식물 품, 꽃의 모양, 화색 그리고 화기까지도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식물이다. 꽃은 9월말에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피며 서리를 맞아도 약간의 살얼음이 어는 초겨울까지 꽃을 피우는 내한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꽃은 질으면서도 밝은 느낌의 별 모양이며 줄기마다 많은 꽃을 피운다. 해가 지면 꽃잎은 바람개비를 접은 모양으로 닫아버리고 아침에 해가 떠 서리를 이슬처럼 녹여 내면 밝고 맑은 보석 같은 꽃잎을 하늘을 향해 열어 놓는다. 일반화단은 물론 옥상, 락가든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식물이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난
무늬대사초



일반적으로 대사초는 한국, 일본, 중국의 산지 나무아래에서 주로 서식한다. 포복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라며 반그늘이나 습기가 많거나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무늬종인 흰줄무늬대사초(*Carex siderosticha* 'Variegata')는 소형의 그라스류로 현재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품종중의 하나이다. 잎 가장자리에 흰줄무늬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포복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란다. 겨울에 낙엽이 지고 약간 서늘한 이른 봄 신초가 올라올 때 잎이 분홍빛을 띠기도 한다. 반그늘이나 간습지를 가리지 않고 자란다.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나 나무아래 피복하거나 음지쪽의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또는 다른 음지식물과 어울려 포인트 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무늬가 좋아 음지쪽의 화단에 단독 식재해놓거나 아니면 다른 무늬대사초류와 번갈아 식재해놓으면 주위를 매우 밝게 해준다. 경사지나 소나무아래에도 식재가 가능하며 암석가든의 돌틈에 포인트로 식재 해주어도 좋다.

번식은 봄에 포기를 분주하거나 삽목을 하면 되는데 번식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대량생산이 비교적 쉽다. 관리면에서도 별로 까다롭지 않으며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퇴비를 많이 해주면 더욱더 잘 자란다. 햇빛에는 약하여 양지쪽에 식재하게 되면 잎 끝이 타버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 쪽에 식재해주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늬대사초류는 그 형태와 무늬에 따라 몇 가지 품종이 존재한다. 흰줄무늬대사초와 유사하며 잎 가장자리에 노란줄무늬가 있는 노란줄무늬대사초(Island Brocade), 잎이 길고 가늘며 잎 안쪽에 노란무늬가 있는 대사초 '골드라이트'(Golden Light), 잎이 짧고 잎 안쪽으로 진한 노란무늬가 있는 대사초 '바나나'(Banana Boat)가 있다. 그리고 잎이 크고

볼륨감이 있는 왕무늬대사초가 앞으로 매우 유망한 품종으로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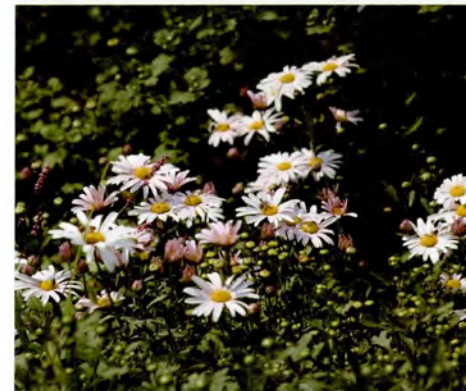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구절초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진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5월 단오에는 줄기가 5마디가 되고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다하여 구절초라 부른다. 시골길 산비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구절초로서 향이 좋아서 말려서 베갯속으로 사용해왔다. 베갯속을 채울 때 메밀껍질과 함께 구절초 꽃을 섞으면 머리카락이 세지 않고 탈모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구절초 꽃을 찌서 뜨거운 물에 수건에 감아 머리띠처럼 하고 있으면 편두통이나 머리가 아플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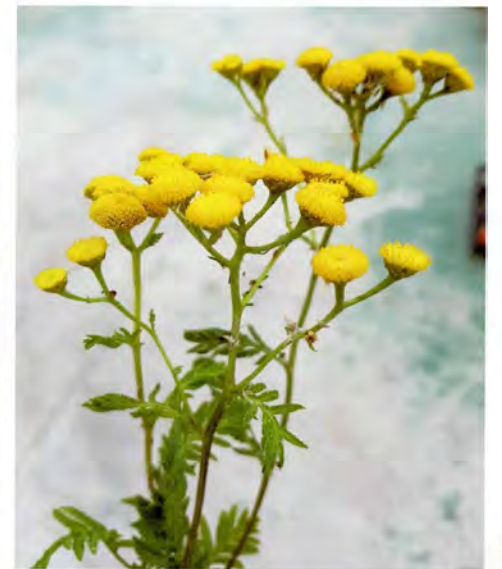
식물체 자체에도 향을 가지고 있다. 방향물질이 세균번식을 억제하여 물체의 부패를 막아 준다. 상처가 난 부위에 구절초 잎을 짓찧어 붙이면 썩지 않고 빨리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알고 보면 구절초의 세균 억제 물질 때문이다. 또한 구절초는 향기로운 차와 약초, 술의 재료로 쓰였는데 가을에 꽃이 핀 줄기를 말려서 끓는 물에 우려내면 연한 차색의 맑은 차가 된다.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수험생이 구절초차를 마시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탠지 Tansy

직립성의 다년생 식물로 세세하게 나뉜진 토피모양의 진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다. 밝은 노란색의 단추모양과 같은 꽃이 여름 중반에서 말까지 핀다. 이 꽃은 겨울 꽃꽂이용으로 건조시킨다.

잎은 잘게 찢어서 오믈렛, 샌드위치, 치즈 요리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서양에서는 전통 디저트와 케이크에 사용되기도 한다. 부활절 탠지 디저트가 그 예인데 달걀과 어린 탠지 잎을 사용한다. 탠지 차는 끓는 물에 약초를 넣어서 만든다. 그리고 탠지는 전통적으로 성이나 큰 집의 바닥에 향을 위해서 뿌려 놓는 약초로 사용 되었다. 또한 파리를 쫓는 기능도 있었다.





시간을 알고 피는 꽃 - 대청부채

지도에서 대청도를 찾아보면 눈이 선뜻 그곳으로 향해지지 않는다. 남한 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북한과 가깝게 자리한 섬이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서북쪽으로 211km나 떨어진 데 비해 황해도 장산 꽃과는 불과 1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3시간 30분은 가야 도착하는 그곳에 대청부채가 살아간다. 대청부채는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붓꽃과의 식물이라 '대청붓꽃'이라 부르는 이도 있지만 정식 명칭은 대청부채다. 북한에서는 '참부채붓꽃'이라고 부른다. 너무 먼 곳이라 그곳의 식물을 접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대청부채 보기가 쉬워졌다. 어지간한 수목원이나 식물원이면 대청부채 하나쯤은 심어 기른다고 보면 맞다. 국내 자생지는 대청도, 백령도, 함경북도일 정도로 서식지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관광 가치가 높아 환경부에서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대청부채의 개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생물시계'다. 대청부채는 특이하게도 오후 3시나 3시 반부터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밤 10시만 꽃을 달고 태엽 모양으로 말린다. 안에 내장된 시계가 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지켜 꽃봉오리를 여

대청부채(붓꽃과)

Iris dichotoma

개화: 8~9월 높이: 50~100cm

대청도와 백령도 및 평북의 산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 뿌리: 황백색의 수염뿌리가 있다.
- ▶ 줄기: 약간 분백색이 돈다.
- ▶ 잎: 2줄로 안듯이 어긋나게 달리고 납작한 선형이다. 길이는 20~30cm, 폭은 2~2.5cm이다.
- ▶ 꽃: 8~9월에 줄기 끝에 2갈래씩 갈라진 가지마다 분홍색을 띤 보라색 꽃이 산형상의 취산꽃차례로 핀다. 지름은 4~5cm이다. 오후 3시경부터 벌어지고 밤이 되면 오므라든다. 외화피는 3개이고 중간 부분에서 수평으로 펼쳐지며 흰색 바탕에 보라색 반점이 있다. 내화피는 3개이고 주걱형이다. 암술대는 외화피를 따라 3갈래로 갈라진 뒤 끝에서 곧게 서고 각 갈래조각의 끝이 2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암술대 뒤에 숨겨져 있다.
- ▶ 열매: 타원형의 삭과이다. 씨는 난형이고 검은색이며 날개가 있다.



대청부채의 잎



대청부채의 벌어지기 전의 꽃봉오리



대청부채의 벌어진 꽃



대청부채의 말린 꽃

닫는다. 그런 현상을 필자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였다. 그날따라 강의가 길어지면서 느지막한 시간에 나오게 되었는데 눈앞에 웬 꽃이 보이는 것이었다. 오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꽃이었는데 말이다. 살펴보니 대청부채였다. 이제야 피는 거구나 하면서 얼른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잠깐만 찍고 가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점점 피어나면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감탄하며 계속 찍었다. 이렇듯 생물이 어떤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을 생물시계라고 하며 대청부채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특성을 모르면 화단에 대청부채를 심어놓고 손님을 초대해도 꽃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보통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야생이 아닌 곳에서는 7월 중순경부터 핀다. 대청부채의 꽃을 보면 꽃받침과 꽃잎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화피(花被)'라는 개념의 용어를 쓴다. 그래서 안쪽의 화피 3장을 내화피라 부르고, 바깥쪽의 화피 3장을 외화피라 부른다. 대청부채는 대개의 붓꽃과 식물들이 그렇듯 외화피가 크고 화려하며 무늬가 있다. 내화피는 외화피 사이사이에 붙고 무늬가 없으며 주걱 모양이고 끝이 오목하게 파인다. 안쪽에 또 하나의 화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화피가 아니라 암술머리가 3갈래로 갈라진 것이며 외화피와 같은 위치에 위아래로 달린다. 그래서 암술머리의 갈래조각과 외화피 사이의 틈으로 벌이 드나들 때 자연스레 꽃가루받이가 이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야생에서는 해안가 절벽 바위틈에 한두 포기씩 자라지만 화단에는 여러 포기를 무리지어 심으면 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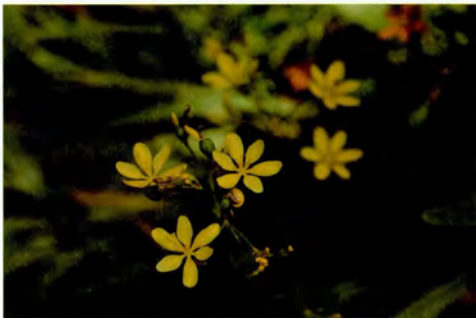
유사종 알아보기

대청부채는 붓꽃과의 식물이지만 붓꽃 대신 부채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채살 모양의 잎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이름이 붙은 식물로 '범부채(*Belamcanda chinensis*)'가 있다. 범부채는 우리 화단에 널리 심는 꽃이다. 화피에 호랑이 무늬가 박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드물게 자란다고 되어 있으나 야생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익어 갈라지면서 까만 씨를 드러낸다. 범부채는 꽃이 화려한 편이어서 여러 원예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그중 화피가 노란색이고 점무늬가 없는 것도 있다.

남부지방에는 '애기범부채'라 불리는 식물이 살아간다. 정식 명칭은 '몬트부레치아(*Tritonia crocosmiflora*)'로, 프랑스의 식물학자 Montbret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영명 Montbretia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남아프리카 원산의 귀화식물로 심어 기르던 것이 따뜻한 남부지방의 들에 야생화하여 자란다. 범부채에 비해 꽃이 작고 총상꽃차례를 이루는 점이 다르다. 그 외에 애기범부채라는 이름의 여러 품종이 있다.



몬트부레치아



범부채의 노란색 품종



범부채의 꽃



범부채

심기와 관리하기

- 대칭부채는 해안가 절벽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통풍이 잘 되고 양지바른 곳에 심는 것이 좋다.
- 배수가 잘 되고 부엽토가 50% 정도 섞인 사질 양토에 심으면 더욱 좋다.
- 물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준다.
- 채취한 종자를 바로 뿌리거나 냉장 보관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된다.
- 포기나누기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글 사진 이동혁
 핵이삼촌의 물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x1>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백화점,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있음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속초에서
온 편지



9월에 노란 종모양의 꽃을 피우는 클레마티스.

글 사진 오경아

9월 September 틈처럼 스미는 계절

여름과 가을의 틈, 9월

불타는 여름은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아직 가을은 아니다. 10월이 오기 전 여름과 가을의 틈에 9월이 있다. 절기상으로는 새벽이슬이 내리는 백로(白露)가 9월 7일에 있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 9월 22일이다. 일반적으로 농사에 있어 9월은 모든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싹 피우는 중요한 시절이다. 그래서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벼가 여물지 못해 흉년이 든다고 본다. 그리고 9월 22일 추분이 오면 이때 벼를 수확한다. 결론적으로 9월은 그 어느 계절보다 맑고 쾌청한 햇살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절에 태풍이 찾아와 맘을 좋게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정원에서는 농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정원에 심어진 과실 수인 장미, 꽃사과, 모과의 열매가 살 쫓아지지만 이제 식물의 잎은 서서히 물기를 빼고 더 이상 광합성을 위한 엽록소를 만들지 않아 초록색을 잃어간다. 낙엽이 드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화살나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뭇잎들은 특별한 특징도 없이 말라가며 떨어져 내린다. 다년생 초본식물도 여름 내내 광합성 작용을 하던 잎을 떨궈낸다. 누렇게 기력이 약해진 튼린, 수선화, 원추리, 범부채, 나리의 잎을 이제는 잘라주는 것이 좋다. 이때 이미 4~5년부터 한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붓꽃, 아기 범부채, 나리 등은 캐내어 묵은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를 모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좋다. 그대로 두면 묵은 뿌리에서 더 이상 잎과 꽃을 피우지 않아 속이 빈 형태로 등성 거리가 때문이다.

누군가 9월은 특징도 없이 쇠락해가는 계절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혹독한 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아직은 추위가 오지 않은 9월은 묘한 설렘이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생긴다. 곧 눈부신 가을이 한 번 더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올 해 못 했던 일들을 다시 내년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물도 나도 모진 날씨를 이기고 기어올라 견뎌 냈다는 감사의 마음이 흐르는 시간, 그게 9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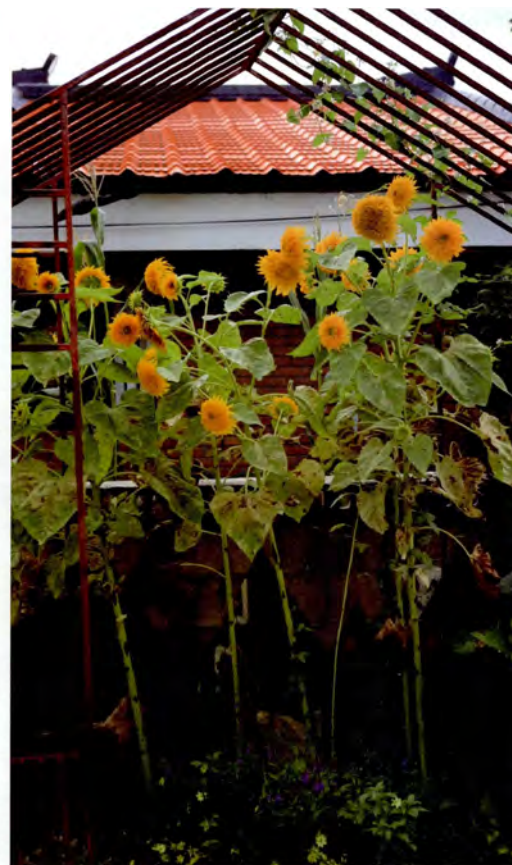
국화의 절정

국화는 식물학적으로 크게 'Chrysanthemum'과 'Aster' 종으로 구별된다. 두 종은 모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의 온대 성 기후 지역을 자생지로 두고 있다. 이 국화에 대한 식물학 이름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에 의해 원래 Chrysanthemum이라고 지어졌다. 하지만 1961년 다양한 관상용 국화종이 꽃꽂이를 위해 개발이 되면서 별도로 'Dendranthema'으로 분리시키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여전히 복잡한 국화 관련 식물 이름을 다시 정리하는데 이때 국화는 Asteraceae 과(科)에 두고 그 아래 속(屬)으로 하나는 Chrysanthemum 그룹으로, 다른 하나는 Aster 그룹으로 구별되었다.

이 중 크리센서머는 중국을 자생지로 둔 식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 의해 꽃의 모양이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아스터 종은 재배가 덜 이뤄지고, 야생 상태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줄기와 꽃잎과 색상도 흰색, 보라, 분홍 정도로 다양하지 않다. 영어권에서는 이 두 그룹을 간단히 줄여서 'mum'과 '아스터'로 구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국화 역시도 이 범과 아스터로 구별이 가능한데, 범의 종류로는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 spp.,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쑥갓 Chrysanthemum coronarium 등이 있다. 아스터 종으로는 쑥부쟁이 Aster yomena, 개미취 Aster taricus, 좀개미취 Aster maackii, 별개미취 Aster koraiensis 등이 있다.

국화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국화를 사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이 있다. 일본은 나라의 꽃을 국화로 지정할 정도다. 유럽에 국화가 소개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로 19세기에 일이다. 하지만 국화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에 눈을 뜬 이들은 이때부터 수많은 재배종을 발전시켜 지금은 국화의 종주국을 이미 능가한지 오래다.

유럽은 아직도 국화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눈뜨고 나면 새로운 품종이 나올 정도로 국화 재배도 활발하다. 그들이 국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성장을 멈추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 귀한 식물이기 때문이다.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랐던 우리 식물이기 때문이다. 흔하기 때문에 재배가 참 많다.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있을 때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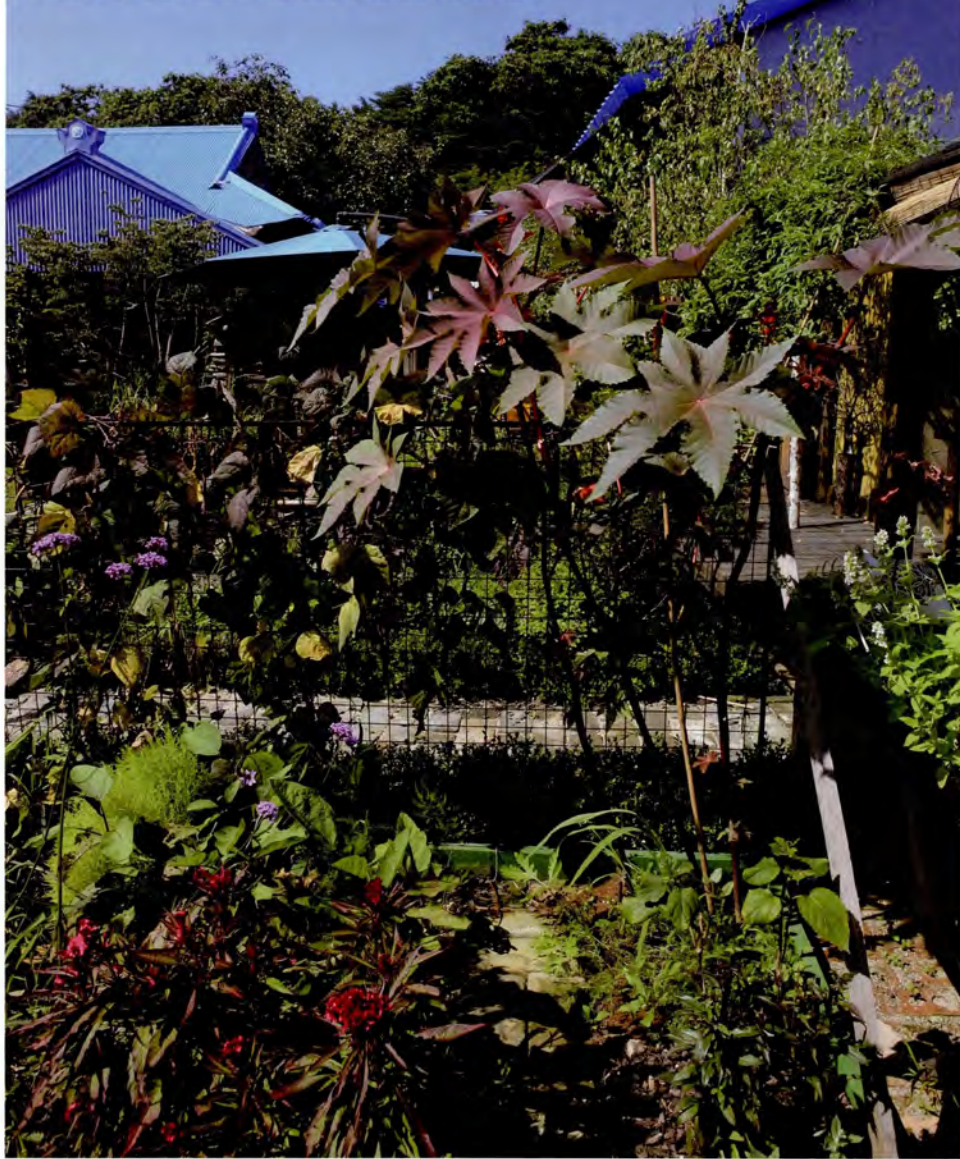
해바라기는 늦여름에 피어나 9월까지 정원에 시원함을 보여준다.



9월은 곡물과 열매를 수확한다.

제2의 절정

가을에 꽃을 따우는 식물이 국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덩굴 식물 클레마티스도 일부 종은 9월에 찬란한 꽃을 피워낸다. 그런가하면 과꽃도 있다. 1년 생이라 씨앗으로도 발아가 잘 되는 과꽃 Callistephus도 가을에 보랏빛, 분홍빛 꽃을 피워낸다. 식물들이 수분을 맺을 때 꼭 필요한 곤충이 사라지는 가을을 택해 피어나는 것은 경쟁의 틈을 노리려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는 병충해의 기승을 벗어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에도 9월의 정원과 같은 틈의 시간, 경쟁을 벗어난 틈새가 있기를 바란다.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우리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식물들 중에는 꽃, 잎, 뿌리 등을 먹을 수가 있는 종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식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식용할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금잔화(Calendula officinalis)

금잔화 혹은 Pot marigold라고 알려져 있는 금잔화는 고대 로마 때부터 인기 있었던 식용 꽃으로 그 당시 가난한 농민들은 값비싼 사프란 대용으로 이 금잔화를 사용했다.

재배법: 금잔화는 시원한 계절에 잘 자라는 한해살이 식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란다. 주황, 살구, 크림색, 노란색 꽃들은 홑꽃이나 겹꽃일 수도 있다. 'Pacific beauty'나 'Kablouna'는 60센티미터 이상 자라는 키가 큰 품종들이다. 'Bon Bon', 'Radio', 'Fiest'는 30센티미터로 자라는 왜성품종이다. 봄, 가을이 짧고 매우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야외에 식물을 내놓기 6주 전에 모판에 씨를 파종한다. 금잔화는 약간의 서리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온화한 겨울을 있는 지역에서는 가을에 금잔화를 심는다. 대부분의 종묘상에서는 옮겨심기를 봄과 가을에 실행한다.

식물 사이의 공간을 20~30cm 정도의 간격으로 식재하고 물을 잘 주도록 한다. 건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에 골고루 물이 스며들게 하고 민달팽이나 달팽이가 있는지 잘 살핀다. 흰곰팡이는 가장 흔한 문제인데 특히 따뜻한 계절에 심하다. 왜성품종은 이 질병에 더 걸리기 쉽다. 'Pacific beauty'는 오래 사는 품종들 중의 하나인데 종종 온화한 기후에서는 자생하기도 한다.

다른 크기의 품종들은 큰 주황색 잎을 가진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Radio'와 쌍떡잎을 가진 'Kablouna'가 있다. 'Fiest'와 'Bon Bon' 2가지 왜성 품종은 노란색, 크림색, 주황색이 섞인 겹꽃을 가진다. 또한 금잔화는 꽃을 잘라서 사용하기에 좋다.

손질하는 방법: 금잔화 꽃잎은 약간 찢기하면서 쓴맛이 난다. 금잔화 꽃잎은 맛 보다는 색깔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 'Pacific Beauty'나 'Radio'는 겹꽃 품종들 보다 세척하기가 쉽다. 금잔화 꽃 손질을 위해서 꽃봉오리에서 잎들을 떼어내서 통째로 넣거나 잘라서 조리된 음식에 첨가할 수 있다. 스프, 쌀 요리, 마핀, 비스킷, 오믈렛과 같은 음식에 넣을 수 있다. 금잔화 꽃잎을 넣은 식초와 달이나 백리향은 멋진 조미료가 될 수 있다. 버터나 부드러운 치즈에 넣을 수 있게 잎을 갈아서 사용한다. 꽃잎의 오일이나 색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조리법에 약간의 기름을 넣기도 한다. 꽃잎 통째로 샐러드, 스프, 쌀 요리의 고명으로 쓰일 수도 있다. 겨울 내내 말린 꽃잎은 스프에 적절하다.



가을에 심는

봄에 아름다운 튜립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화분 등 어디든지 식재가 가능한 전천후입니다.
또한 우리꽃은 튜립을 비롯한 다양한 추식구근을 공급합니다.



월드컵공원



구로구청 앞 화단



영등포 중앙분리대



남산공원

튤립(Tulip)

디자인 및 식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회사인 우리꽃에게 문의하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골든아펠론



아펠론



네그리타



다이너스리



키스네리스



화이트드림



리반더마크

식재시기

10월 초 ~
11월 말



무스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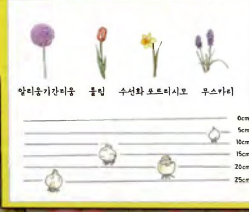


수선화



알리움기간티움

식재깊이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 031-634-7990 F. 031-634-7991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국내산 당귀에서 에센셜오일을 추출하여 한방아로마테라피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글 사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www.aromailife.com aromailife@naver.com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당귀(강원도 평창)에서 국내 최초로 초임계(CO₂) 추출로 당귀 에센셜오일을 추출하여 체질에 맞는 오행(목, 화, 토, 금, 수) 향수와 디퓨저에 적용하고 있다.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와 (주)힐링네이처, 그리고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허브향기치유연구회(전국에서 모임)는 8월 18일(목)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당귀 재배농장을 견학하였고, 국내 최초로 당귀에서 에센셜오일을 추출하였다.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와 (주)힐링네이처는 앞으로 국내 한약재와 국내 허브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연구, 교육, 유통을 함께 진행하는 업무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해외에만 의존하고 있던 아로마테라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로, 우리나라의 한방아로마테라피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센터인 (주)힐링네이처와 함께 당귀, 천궁, 독활, 개똥쑥, 감국 등 한약재에서 에센셜오일을 추출하고,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된 전나무, 금강송, 구상나무 등에서도 오일과 플로열워터(또는 하이드로졸)를 추출, 성분분석, 연구, 제품 개발, 유통을 통해 한방아로마테라피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힐링네이처에서는 국내 한약재 당귀, 천궁, 독활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활용해 체질에 맞는 오행(목, 화, 토, 금, 수) 향수와 오행 디퓨저를 개발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업무협력협약식이 끝난 후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함께 걸으며 전국에서 모인 원광디지털대학교 허브향기치유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전나무의 천년의 숲길을 온몸으로 느꼈고,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감사반 8기의 아로마 상담사 1급(감사반) 자격증 수여식이 거행되어 더욱 값 있는 행사가 되었다. 특히, 부산에서 오신 시각장애인 김미나 선생님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로마테라피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 아로마 전문상담강사로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금강송(적송) 잎



금강송 오일 추출-수증기증류법



금강송 오일과 워터



금강송에서 추출한 오일

당귀 재배농장-평창군 봉평면



당귀에서 초임계로 당귀오일을 얻는 장면



당귀 초임계추출 설명



금강송에서 추출한 오일



김미나(시각장애인) 자격증 수여



당귀 농장주(25년 재배)로부터 당귀재배 설명을 듣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2



천궁 재배농장



천궁



오행향수-힐링네이처



협약식후 단체사진 촬영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Spirited Garden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

생각하는 정원

思索之苑 · SPIRITED GARDEN · 思索する庭園

제주도 생각하는 정원

성범영(77)원장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생각하는 정원은 1만 2천여평에 7개의 소정원, 환영의 정원(Welcome Garden), 영혼의 정원(Soul Garden), 영감의 정원(Inspiration Garden), 철학자의 정원(Philosophy Garden), 감귤정원(Mandarin Garden),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 평화의 정원(Peace Garde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과 돌이 많은 지역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 낸 정원이며, 분재 정원이라는 테마에 맞게 각 정원의 분재 작품은 분에 심겨져 오랜 세월 수형의 아름다움을 청아하게 표현한 소형작품과 함께 정원에 식재해 굵은 자일로 수형을 만드는 큰 교목까지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고, 직접 교정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초입부터 바람을 막기 위해 화산석을 겹으로 쌓은 돌담이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면서 세월의 색을 고스란히 전해주며 정원을 감싸며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동화속 성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정원을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분재 작품과 함께 그 밑으로 식물과 분재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설명이 세세히 적혀 있어서 말 그대로 그 글을 읽으며 분재 작품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원이다. 관람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정원들은 돌담의 형태와 조형물, 바위의 구성, 분재 작품의 구성, 분재 작품의 받침 디자인, 소정원의 곡선까지 조금씩 변화를 주었고, 같은 제주석으로 만든 벽천(폭포)과 연못, 돌다리도 소정원마다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됨을 볼 수 있다.

7개의 소정원은 관람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데, 환영의 정원은 정



문(환아문) 앞에 조성되어 있고, 등나무와 아래로 연자방아가 단아한 모습으로 고개 속인 소나무와 함께 맞이하고 있다. 돌담 경사로 길의 모퉁이를 돌아 영혼의 정원으로 접어들면 원형의 넓은 잔디정원을 가운데로 하고 가장자리로 층으로 만들어진 돌담과 원형으로 쌓은 7층 돌담이 웅장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옆 길을 따라 영감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향나무와 잔디 언덕, 분재 작품의 행렬, 구화목, 연못, 벽천, 돌담 그네 등 다양한 소재의 조형물이 시선을 잡는다. 철학자의 정원은 분재 작품 하나하나에 설명서를 읽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재 철학에 심취할 수 있는 정원이다. 감귤정원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하귤, 왕귤, 금귤, 산물, 명유자 등 재래종 길감을 길을 따라 가며 감상할 수 있다. 비밀의 정원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정원이다. 초창기에 잠깐 개방한 시기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개방하지 않고, 국가적 행사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밀의 정원은 분자와 같은 느낌으로 포근함마저 느껴진다. 가운데 넓은 잔디와 가장자리로 언덕을 만들어 언덕 내부에 각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디어는 놀랍다. 특히 화정실은 외국인사가 긴여정의 피로가 아깝지 않다는 찬사를 보낼만큼 아름답다고 했다는 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벽천과 연못의 곡선과 제주석으로 만든 다리의 곡선, 정원의 전체적인 곡선이 어우러져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원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이해가 된다. 평화의 정원은 생각하는 정원의 메시지인 평화를 주제로 조성하여 6개의 정원을 보고 난 후 조용히 안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장갑다리를 건너볼 수도, 심터에 앉아 비단잉어의 자유로운 수영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벽천의 물을 바라보며 명상에 젖고, 청아한 물 소리에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마저 드는 정원의 신비로운 매력이다.

성범영 원장은 1963년 제주도가 20여년간 15만톤의 돌과 흙을 운반



하여 수도와 전기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정원을 조성했다. 제주도는 돌은 많지만 흙은 귀해 많은 경비를 들여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잠시 디자인을 변경하면 그 귀한 흙은 돌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식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탐이 났지만, 무분별한 채취는 식물을 아끼는 이로써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내륙 지방에서 구입해 배로 옮겨 이식에 성공한 것들이라 한다. 특히 이식에 성공률은 평균 95%라 하니 놀라운 숫자이다. 이식이 어려운 것들은 직접 파종을 해서 환경에 적응시켜 성공한 것들이며, 도리어 이런 종류들이 생명력이 더 강하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저 두루 외! 남이 밥 먹여주냐?”(저 미친 나무가 밥먹여 주냐) 하며 손가락질 했지만 멈추질 않았고, 1992년 분재와 나무에 대한 사랑으로 분



재예술휄이라는 생각하는정원의 모체가 개원했다. 일반 사람이 본재를 배우고 가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 열정, 노력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많은 것은 보여주며,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고, 생각하는 정원으로 탄생되었으며, 지금도 항상 새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정원을 조성해 나간다고 한다.

본재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들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본재가 성행했고, 조선시대는 사대부들의 고상한 취미생활로 자리잡기도 했다. 조선 세종때 집현전의 관료로서 문장과 그림에 능했던 강희안선생의 '양화소록'에는 화분에 노송을 기르는 법 등의 본재에 관한 글과 그림이 비중있게 실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본재가 유행하다가 점차 소수의 문화가 되어 버린 이유는 물론 까다로운 관리에도 있었지만, 나무에 대한 잔혹함에 대한 비평이 일조를 했다. 중국에서도 본재에 빗대어 청나라 정부의 비리를 묘사한 병매관기라는 글이 있는데 그 속내는 상통한다. 하지만 성원장의 생각이 중국의 방송매체에 보도 되면서 중국인들의 본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대화 내용을 인용해 본다.

"당신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군요. 그냥 놓아두면 자연적으로 클 수 있는 나무들을 구부리고 비틀면서 이런 잔혹한 모양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잔혹한 것이 아니라, 교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생적 기질을 타고 난 나무들도 내 손에 의해 길러지고 다듬어지면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자아내게 할 수 있지요. 나의 손을 거치고 나면 나태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마음이 거친 사람은 온화한 사람으로, 천방지축 들떠있는 사람은 차분한 사람으로 방탕함보다는 엄격한 규율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들이 말하는 본재란 것이 순수한 나를 비틀고 구부리고 하는 잔혹한 것이라면 그 나무들이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반드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생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활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미까지 도달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돌투성이 황무지를 정원으로 만든 분투여정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킨 한국정원의 상징으로 중국 교과서에 게재 되면서 성범영 가드너는 한중 우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유명하다. 생각하는 정원에 관리는 주가 본재이기 때문에 관수가 가장 중요시 되며, 특히 작은 분에 식재된 본재의 경우 세심한 물관리가 중요하다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수형의 교정을 위해 틀을 잡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한다. 비료는 주로 유박으로 관리를 했는데, 최근들어 벌레들이 많아지면서 새들의 개체수도 늘어 피해가 생겨서 다른 비료로 대체하려고 고민중에 있다고 한다.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로부터 많은 지혜와 철학을 배우게 되고 국내외 수많은 지식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정원이라 말로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란 생각이 들며, 나무는 세상의 순리를 배울 수 있는 영원한 스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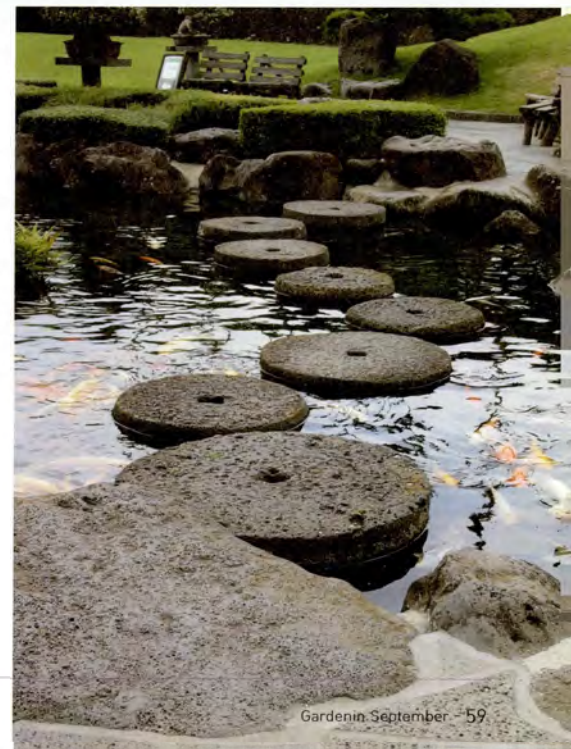
생각하는 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녹차본재로 675

064-772-3701~3/

www.spirtedgarden.com



힐링원에

글 사진 김해숙(신안산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어릴 적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식충식물은 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더불어 여름날의 해방같은 모기를 퇴치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Chapter 8.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식충식물이란

식충식물이란 곤충 등을 잡아먹어 소화, 흡수하고 그것을 양분으로 이용하는 식물의 무리를 말한다. 즉, 잎 면 또는 잎의 변형물에 특수한 구조를 갖 추고 곤충류를 포착해서 소화액을 분비하여 동물 단백질 등을 양분으로 섭취한다. 고산지대 습한 암벽이나 습원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아프리카, 열대아시아, 북미 등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기묘한 포충기관(捕蟲器官)이 있어 분화재배로 관심한다.

식충식물의 분류

식충식물은 포충엽, 즉 벌레를 잡아 소화하는 잎의 생김새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 ① **함정형** : 사라세니아나처럼 낭상엽(주머니잎)에 떨어진 벌레가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형태
- ② **점모형** : 끈끈이주걱의 털이나 벌레잡이제비꽃의 점엽 등과 같이 접착력을 이용하는 형태
- ③ **낭정형** : 네펜데스의 주머니 잎처럼 문이 달린 주머니 안으로 벌레를 빨아들이는 형태
- ④ **폐합정형** : 파리지옥과 같이 잎사귀 전체가 닫히면서 벌레를 가두는 형태

식충식물의 종류

대표적인 식충식물은 네펜데스 (nepenthes), 벌레잡이제비꽃,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사라세니아 (sarracenia) 등이 있다.



네펜데스

① **네펜데스** :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상록여러해살이풀로 덩굴성이다. 벌레잡이 통풀이라고도 한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잎의 한가운데를 세로로 통하는 붉은 잎맥이 자라 끝에 벌레를 잡는 통을 만든다. 벌레잡이 주머니(통)은 잎이 변해서 된 것이다. 통의 입구와 그 부근의 뚜껑에는 꿀샘이 있어서 벌레들을 유인하는데 벌레가 미끄러운 통 속으로 떨어지면 그 속의 소화액에 의해 소화 흡수되는 것이다. 꽃은 검은 자주색으로 핀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적온은 20~35도이고 최저 한계온도는 20℃이다. 공중 습도는 7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 광선은 반그늘이며 한여름 직사광선에서는 잎이 타다. 줄기꽃이로 번식하며 6~7월에 줄기를 잘라 이끼에 심는다.

② **벌레잡이제비꽃** : 통발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북아메리카의 해안지방과 북반구의 고생 지대가 원산지이다. 잎은 부리에서 뭉쳐나고 옆으로 퍼지는데 긴 타원형으로 안쪽으로 말리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의 뒷면에 선모(腺毛 - 식물의 몸 겉쪽에 있는 털)가 있어 점액이 분비되며 여기에 작은 벌레가 붙으면 점액의 침투작용으로 죽는다. 이 점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있어 먹이를 용해, 흡수한다. 잎 사이에서 1~4개의 꽃줄기가 생겨나 꽃이 하나 핀다. 꽃은 자주색이고 제비꽃 모양이다.



벌레잡이제비꽃

③ **끈끈이주걱** : 끈끈이주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중부지방의 햇빛이 잘 드는 습지에서 자란다. 줄기는 20cm 정도이며, 흰색의 꽃으로 7월에 줄기 끝에 이삭모양으로 핀다. 가늘고 긴 주걱모양의 잎이 부리에서 뭉쳐 나온다. 새잎이 나올 때는 푸른색이나 점점 붉게 변한다. 잎 표면에 붉은색 긴 털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작은 곤충이 닿으면 끈끈한 액체를 내어 벌레를 잡는다. 곤충이 붙으면 소화액이 분비되어 먹이를 녹여 영양분을 얻는다. 습도가 부족하면 점액질이 잘 생기지 않아 벌레를 잡을 수 없다. 잎끝이나 종자로 번식한다.



끈끈이주걱

④ **파리지옥** : 끈끈이주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이다. 높이는 10~40cm이며 잎은 부리에서 뭉쳐나온다. 잎은 쌍조기비와 같은 형태이며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돌기가 일렬로 다수 돌아있다. 2개의 잎 안쪽에는 비늘 모양의 감각모가 각각 3개, 총 6개 있다. 여기에 곤충이 닿으면 0.5초 안에 잎이 오므라들면서 포획한 다음 소화액을 내어 소화, 흡수한다. 5~7월에 흰 꽃이 피며, 5~35℃에서 자라며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 겨울철 0℃에서 휴면을 해야 이듬해 식물체가 튼튼하다.



파리지옥

- ⑤ **사라세니아 푸푸레아(Sarracenia Purpurea)**: 사라세니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로제트형으로 포충낭과 열린 두껍은 특징이다. 줄기는 없으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 나오고 나팔 모양으로 길다. 잎 안쪽에는 잔털이 있고 액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빠진 곤충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누런색 또는 자주색의 꽃이 한 개의 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공 모양으로 속에 씨가 많이 들어있다.



사라세니아 푸푸레아

- ⑥ **사라세니아 류코필라(Sarracenia Leucophylla)**: 북아메리카 동부해안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마치 트럼펫 같이 생겼으며 습지나 늪에서 자생한다. 가을철 포충엽이 시들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 땅속 줄기만 살아남는다. 봄이면 기다란 줄기 끝에 꽃이 피며 꽃이 진 후 땅속 줄기에서 포충엽이 나온다. 포충엽은 뿌리에서 바로 나와 기동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로 서너 개의 잎이 20~50cm 높이로 자란다. 벌레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따로 없으며, 함정 속으로 들어오면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만 가지고 있다.



사라세니아 류코필라

식충식물의 관리

- ① **물주기**: 흙이 약간 습한 것이 좋으나 과습 상태에서는 뿌리가 약해진다.
- ② **햇빛**: 햇빛을 좋아하며 양지바른 곳이 적당하다. 여름철은 반그늘에서 재배한다.
- ③ **온도**: 최적온도는 25~30℃이다. 열대산의 네펜데스는 최저 15℃ 이상, 온대산인 사라세니아, 곤곤이주걱, 파리지옥은 최저 5℃에서 재배한다.
- ④ **토양**: 산성토양(pH 5.0)인 피트모스에서 재배한다.
- ⑤ **공중습도**: 70% 내외
- ⑥ **번식**: 줄기꽃이 (네펜데스), 종자 (곤곤이주걱, 벌레잡이제비꽃), 포기나누기 (곤곤이주걱, 벌레잡이제비꽃, 파리지옥), 잎꽃이 (곤곤이주걱, 벌레잡이제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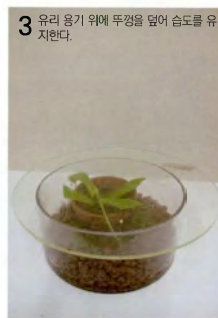
네펜데스 삽목하기: 장마철에 실시, 잎에 하나 붙은 마디의 중앙에서 잘라 물이끼에 꽂는다. 약 30일 후에 뿌리가 내린다.



1 줄기를 자른다



2 용기 밑에 정은 하이드로볼을 깔고 그 위에 수태를 넣고 줄기를 자른 네펜데스 화분을 넣는다.



3 유리 용기 위에 두껍은 담여 습도를 유지한다.

글로버 조플릿 행복
행복과 행운을 동시에 드립니다하늘국화 금방식
금나와리 독막
금방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제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텅커벨시리즈
아니 릴~수, 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망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글든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놓고 앉아 꽃피우는

가든인 칼럼

가을·동절기 식재, 하자 줄일 수 있다

글 사진 서준혁



많은 현장 담당자 혹은 설계자들은 식재와 식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하자의 발생에 많은 우려와 경계감을 표시한다. 그렇다면 숙근초는 늦가을 혹은 겨울철에 심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하며,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숙근초란 달리 다년초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무가온 상태로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들을 말한다. 조경현장에서 야생



가을 혹은 동절기 식재되는 뿌리 볼록이 잘 형성된 포트를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 지파식물이라 말하는 대부분의 식물이 큰 범주의 숙근초에 포함된다. 숙근초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뭘니 해도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근초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자연이 주는 이 방해공작(추위 혹은 곤충에 대해 적응 되었을까? 바로 휴면이다. 겨울 혹은 여름잠을 자는 것이다. 휴면기간에는 일상적인 호흡을 멈추고 생명력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진대사를 일으킨다.

늦가을에 심으면 얼어 죽는다(?)

그래도 늦가을에 심으면 얼어 죽기 심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식물의 휴면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숙근초가 휴면기에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매우 무뎈기 때문이다. 또, 휴면기에는 식물에 주는 상처가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는 많은 병해충의 생활도 휴면에 들기 때문에 상처를 통한 감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식물의 이와 같은 휴면기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숙근초가 가을, 혹은 겨울에 심은 결과로 동해를 입어 죽었다면 진정한 의미의 숙근초가 아닌 것이다.

'건조성 동해' 유발하는 서릿발 피해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건조에 의한 동해피해는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을 보리밭기를 통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리밭기는 서릿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서릿발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른 봄 땅이 막 풀릴 때쯤 보리밭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들뜬 뿌리를 다시 토양에 밀착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앞으로 다가올 봄 건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이라면 보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잎을 짓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상처로 인해 큰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 기간이 아직 휴면기이기 때문이다.



동절기 식재현장 모습

되도록 땅이 얼기 전에 식재를 마쳐야

숙근초를 늦가을 혹은 겨울철에 식재할 경우 이 같은 원리를 살린다면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숙근초는 겨울 동안에 꽃눈을 혹은 내년에 새를 게 자랄 새순을 만들고 키우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휴면기에 하게 된다. 가을식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적응시켜 주는 셈이다. 오히려 봄에 식물이 이제 생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식재하게 되면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는 꽃눈을 건드려 상처를 내게 되면 기형의 꽃을 피우거나 꽃눈이 떨어져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준비된 새로운 색인이 손상돼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늦은 가을에 식재를 할 때는 되도록 땅이 얼기 전에 식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에는 표면이 얼었다가 오전 중 녹는 11월 말이나 12월초의 경우는 작업 전날 식재지에 거적이나 비닐을 깔아 토양이 되도록 얼지 않게 하면 작업도 쉽고 생육에도 효과적이다. 토양이 얼지 않을 때 식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뿌리 사이로 흙이 골고루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묘목을 심을 때 줄기를 흔들며 뿌리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이론과 같은 것이다.

용기(포트)묘를 이용하고 일반 묘는 잔뿌리를 잘라야

포트 묘는 재배 용기에서 적당하게 뿌리가 충실하게 자란 묘를 말하면 이는 식재지의 토양에 완전히 뿌리가 활착하기까지의 생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분얼'이라는 규격으로 유통되는 맥문동, 꽃창포, 붓꽃 등 주로 포기번식이 잘 되는 식물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뿌리가 잘 형성된 포트 혹은 용기 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분얼로 공급되어지는 식물이 가을, 혹은 동절기에 식재할 예정이라면 미리 생산자와 계약하여 용기묘 재배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맥문동, 꽃창포, 비비추 등 용기재배가 관행화되어 있지 않은 식물

의 경우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 잘 정리한 다음 식재하는 것이 활착과 생육, 그리고 동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는 뿌리가 많은 상태로 흙을 파고 심게 되면 뿌리사이로 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뿌리의 활착이 어려워지고 공기가 바로 맞닿게 되어 건조해와 동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식재시는 뿌리를 자른 비율만큼 지상부도 잘라야 한다.)

동절기 식재, 물 충분히 주고 표층은 얼려야

식재후 물을 흠뻑 주어 뿌리 사이로 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고 토양이 빨리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절기 식재의 경우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 토양을 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부지방의 동절기는 토양표면이 항상 얼기 때문에 식물, 특히 숙근초를 심는 경우 거의 10cm 내외를 파고 식재한다. 표면이 얼어 있는 경우 흙이 잘게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 상태여서 식물의 뿌리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아 구멍이 송송 뚫려 있게 된다. 이 경우 물을 주면 토양이 녹으면서 뿌리사이로 잘 채워져 건조성 동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설사 녹지는 않아도 뿌리 주변 및 표토층을 얼게 하면 이간의 기온이 똑 떨어져도 식물을 저온으로부터 보호하는 외겹 역할을 하게 된다. 얼음의 빙점은 0℃이므로 그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 얼음이 얼지 않고 차가운 밤 기온이 바로 식물의 뿌리에 직접 닿는다면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기온이 내려가는 날에는 다음날 얼지않게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준다.

겨울철에는 거적을 덮어 서릿발 예방하고 불생육 촉진해야

겨울철 관리요령의 한 방편으로 우선 서릿발의 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릿발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식물의 뿌리를 토양 밖으로 밀어내므로 뿌리가 봄에 건조성의 동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거적을 덮어 주면 우선 서릿발의 해를 줄일 수 있고, 겨울철과 이른 봄 건조를 막으며 꽃눈과 잎눈을 저온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른 봄 생육을 빨리 진행시켜 빠른 활착을 유도할 수 있다.

“정원문화 교육 입문은 자기여생의 행복과 힐링 시작이다”

2016 도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9가생 모집

1 과정안내

주 최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6년 8월 31일 ~ 12월 7일(매주 수요일), 총14강 / 자세한 일정 추후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교육장
수 강 료	50만원(교재 및 교육재료 포함)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30명(선착순) · 힐링정원 문화에 소양과 관심있는 분 · 자기정원 조성 및 계획 설계를 희망하시는 분 · 정원문화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 자영업을 희망하시는 분 · 귀농귀촌 희망 및 준비하시는 분 누구나

2 강좌혜택

- 교육기간 중 신상품에 한해 구입가 20% DC 특혜
-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및 졸업앨범 수여
- 수강기간 중 3~5회 모범사례 정원답사 기회 제공
- 당기교육 수강생 전원 종식 제품(14강)

3 강좌특징

-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 각 분야 국내 유일의 최우수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강의합니다.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 실습을 통해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4 커리큘럼

강의순서	강의내용	교육시간
제 1강	개강식 / 식물환경과 환경	4시간(이론2/실습2)
제 2강	정원문화의 이해	4시간(이론2/실습2)
제 3강	정원식물의 종류와 특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4강	정원 계획과 설계	4시간(이론2/실습2)
제 5강	생태정원 조성 및 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6강	우리꽃 아생화 그 종류와 특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7강	우수정원 답사 / 소정원 조성 작품전시	4시간(실습4)
제 8강	수목의 식재와 관수	4시간(이론2/실습2)
제 9강	실외정원 조성 기법실무	4시간(이론2/실습2)
제 10강	친환경 채소정원 조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11강	병해충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12강	수목의 전지 전정	4시간(이론2/실습2)
제 13강	정원의 비배와 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14강	식물번식 / 소정원 작품전시회 / 수료식	4시간(이론2/실습2)

5 교육문의

-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이메일 gardenjoa777@naver.com

우리꽃연구소 농장 정원에서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강의!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 상기 수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문화 실무 중/급/반

정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각분야 국내 유일의 **최우수 전문 강사진 구성!!**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현장실습!!**

우리꽃 교육 중심 강좌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 전개!!**

기존 아카데미 수업보다 폭넓은 **실습위주의 수업!!**

실무 사업준비를 위한 **기초 다지기!!**

1.

과정안내

교육기간 총 14강 / 자세한 일정 추후공지
수 강 료 100만원(교재 및 실습비 포함)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최소 10명 이상)
지원자격 · 정원문화 실무 자격 습득 희망자
· 정원조성 사업 준비생
· 정원공사 분야 취업 희망자
· 정원 소재 생산업 희망자
· 정원문화 실무 교육 사업 준비생
· 귀농산촌 힐링여행 계획 희망자

2.

강좌혜택

- 본 아카데미 교육수료생 및 당기 교육 수강생에게는 다음과같은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 조경조성에 대한 상시자문
- 자사 조경원에 식물 및 조경자재 구입 시 10%DC(신상품 20%DC)
- 조경공사 의뢰요청 시 공사비 10%DC
- 정원문화 확산 목적에 따라 수강생 입학 추천 시 혜택
- 수강생 전원 교재 무료배부
- 수강 기간 중 3~5회 모범사례 정원답사 기회 제공
-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및 졸업앨범 수여
- 당기 교육수강생 전원 종식제품(14강)
- 수료자 전원에게 본원 아카데미 회원증 배부 (평생 자사 생산자재 및 식물 구입 시 5%할인권 부여)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인증서 부여 (본원의 실무지식 자격 인증서는 본사의 시공협력 및 협찬 특혜)

3.

교육문의

-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COLOUR IN THE GARDEN



검정색은 흰색과 마찬가지로 무채색이면서, 명도가 제일 낮은 색이다. 수채화에서는 검정색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계통의 물감을 모두 섞어서 최대한 검정에 가깝게 만든다. 즉 검정을 만들 때 섞는 모든 색과 검정은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흰색이나 밝은 계통의 색과 어울리면 밝은 색은 더욱 밝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검정색의 꽃들(Black Flowers)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색적인 매력을 정원 속으로 끌고 들어와 밝고 어두움 또는 악센트로서의 맛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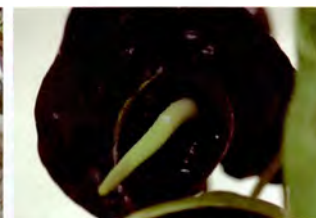


오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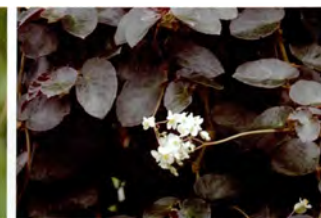
풍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애오니움 '워트롭'
Aeonium 'Zwartkop'
돌나물과·속근초
▶ 4-5월 ☀ 3월, 10월 ↓ 1.5m



검정 안스리움
Anthurium black
천남성과·속근초
▶ 11-2월 ☀ 3월, 10월 ↓ 0.6-0.8m



베고니아 원예종
Begonia cv.
베고니아과·속근초
▶ 12-2월 ☀ 3월, 10월 ↓ 0.8-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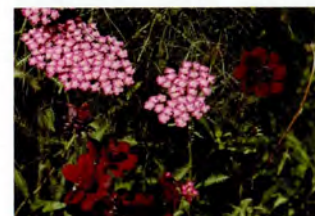
베고니아 '플로벨레 모젤리'
Begonia 'Flobelle Moseley'
베고니아과·속근초
▶ 12-2월 ☀ 3월, 10월 ↓ 0.8m



칸나종류
Canna sp.
·속근초
▶ 7-8월 ☀ 3월, 10월 ↓ 1.5-2m



사초종류
Carex sp.
사초과·속근초
▶ 4-6월 ☀ 3월, 10월 ↓ 0.8-1m



코스모스 '초카모차'
Cosmos atrosanguineus 'Chocamocha'
국화과·일년초
▶ 7-8월 ☀ 3월 ↓ 0.8-1m



에키네시아 종류
Echinacea sp.
국화과·속근초
▶ 7-8월 ☀ 3월, 10월 ↓ 1m



황새풀
Erica vaginatum
사초과·속근초
▶ 4-5월 ☀ 3월, 10월 ↓ 0.6m



멜라바이 전나무
Aster delavayi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 3월, 11월 ↓ 25m



시코키아늘천남성
Arisaema sikokianum
천남성과·속근초
▶ 4-5월 ☀ 3월, 10월 ↓ 0.5m



루피쿨라 아룸
Arum rupicola
천남성과·속근초
▶ 4-5월 ☀ 3월, 10월 ↓ 1.0m



황금크물사초
Carex elata 'Aurea'
사초과·속근초
▶ 4-6월 ☀ 3월, 10월 ↓ 0.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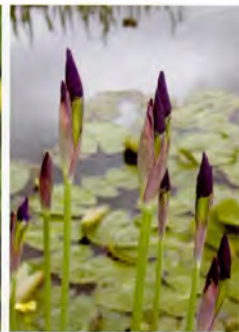
다알리아 '비숍 오브 린다프'
Dahlia Bishop of Lindaff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1m



수염파랭이꽃 검정색 그룹
Dianthus barbatus Nigrescens Group
석죽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8-1.0m



페르시아파모
Fritillaria persica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3월, 10월 ↑ 1-1.2m



▶ 5-6월 수 3월, 10월 ↑ 0.8m
시베리아붓꽃 '카이사르스 브라더'
Iris sibirica Caesar's Brother
붓꽃과·속근초



아미그달로이데스대극 '퍼퍼레아'
Euphorbia amygdaloides Purpurea
대극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m



유럽너도밤나무 아트로퍼퍼레아 그룹
Fragaria sylvatica Atropurpurea Group
침나무과·낙엽활엽목
▶ 월 수 3월, 10월 ↑ 12m



파움제라늄
Geranium phaeum var. phaeum
쥐손이풀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6m



제라늄 종류
Geranium sp.
쥐손이풀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6m



히브리두스헬레보루스 애쉬우드 더블
Helleborus x hybridus Ashwood double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2-4월 수 3월, 10월 ↑ 0.5m



붓꽃 '캣츠 아이'
Iris 'Cats Eye'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붓꽃 '다크 로실렌'
Iris 'Dark Roseleen'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붓꽃 '딥 블랙'
Iris 'Deep Black'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붓꽃 '비길란테'
Iris 'Vigilante'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비리디플로라 익시아
Ixia vridillora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양국수나무 '디아볼로'
Physocarpus opulifolius Diabolo
정미과·낙엽활엽관목
▶ 6-8월 수 3월, 10월 ↑ 1.5-2.5m



히다카눔꽃고비 '퍼플 레인'
Polemonium yezoense var. hidakanum 'Purple Rain'
꽃고비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m



아시아티쿠스 라누클러스
Ranunculus asiaticus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m



솔리반티원추천인국 '골드스텀'
Rudbeckia fulgida var. sullivantii 'Goldsturm'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1m



솔채꽃 종류
Scabiosa sp.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1m



튤립 원예종
Tulip cvs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10월 ↑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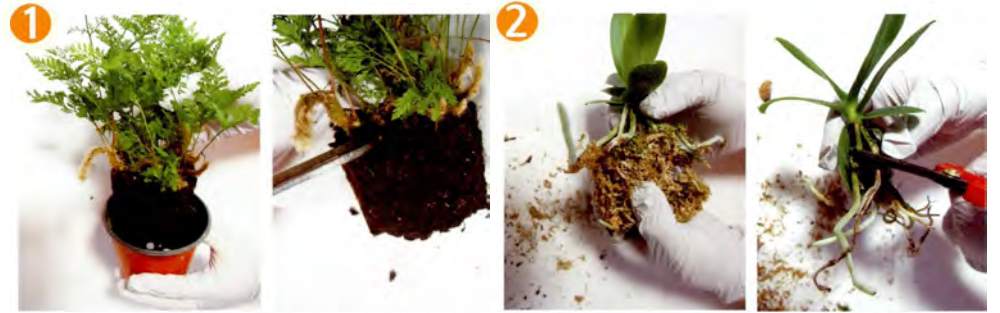


오래된 도마와 피서지에서 주운 돌로 만드는 석부작

글 사진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회장



Material



넉줄고사리는 포트에서 분리해 흙 속에 있는 잔뿌리는 제거하고 비늘이 있는 대엽, 소엽 풍란은 백태를 제거하고, 상한 뿌리도 완전히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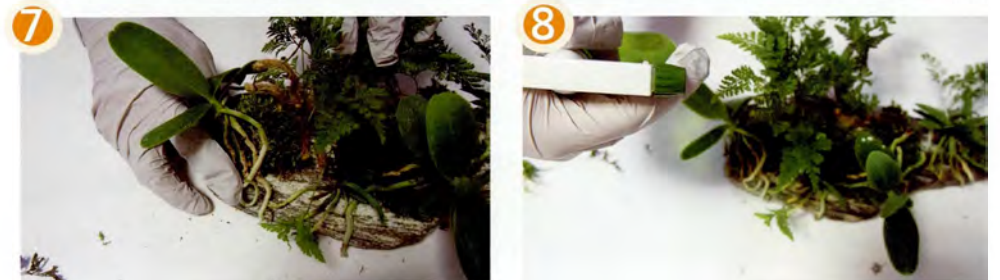
돌은 민물 돌이어야 하며, 일주일 이상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말리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돌에 넉줄고사리 붙일 자리에 생화 본드를 먼저 짚 후 붙이는 것이 안정적이다.

비단이끼도 같은 방법으로 붙인다.



소엽 풍란은 뿌리 3개 정도의 중간 부분에 본드를 묻혀서 붙인다.

대엽 풍란도 이끼를 붙인 후 같은 방법으로 붙인다.



풍란을 다 고정시킨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뿌리 부분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정이 덜 되었으면 다시 한번 고정시켜 준다.

분무기를 이용해 충분히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여러 번 관수하고,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으면 도마에 올려 장식한다.

>> 관리법

공중습도가 높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습한 곳에 관리하되,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정원으로의 여행 18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정원의 연못, 물 이야기

정원의 구성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이다. 정원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었다. 연못을 만들고 그 주위에 녹음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이 물을 이용하여 식물에게 관수도 해 주었다. 정원에서 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연못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연못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경치를 아름답게 해줄 뿐 아니라 물의 소리를 이용하여 안정감을 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어 시원함을 주기도 한다. 또한 정원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장소로 정원을 돋보이게 해준다.



bodnant hall - 긴 직사각형의 연못은 정원에서 포컬포인트, 즉 사람들의 초점을 이곳에 모을 수 있게 만든다. 연못에 비치는 건축물의 모습을 이용하여 투영미를 강조해 주기도 한다.

연못의 경우 형태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이다. 자연스러운 연못의 경우 우리가 산이나 계곡을 놀러 갔을 때를 기억하면 된다. 자연의 모습을 축소하여 정원에 배치하기 때문에 정원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단, 식물의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너무 한가지 식물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인위적인 형태의 정형식 연못은 정원의 스타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선을 만들 때 돌, 벽돌 등의 소재를 어떤 색깔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는지에 따라 연못 경계를 만드는 소재도 다양해 질 수 있다.



같은 모양의 연못이라도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왼쪽은 주변에 쓰인 소재가 돌이고 오른쪽은 화단의 경계를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못 경계로 벽돌을 사용하였다.
왼쪽 Howick hall/ 오른쪽 Mottfont abbey garden



그렇다면 연못의 경우 언제, 어디에 만드는 것이 좋을까? 연못을 만들기 가장 좋은 때는 늦은 겨울이다. 겨울이면 정원을 다시 정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건조한 날씨에 만드는 것이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리가 내리거나 몹시 추운 날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는 봄에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어디에 만드는 것이 좋을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내 정원이 작년에 어땠는지 기억해 보면서 기존에 식재가 된 장소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고 경사지에 있다면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낙엽수들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치우느라 정원일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못 주변으로 의자를 만들거나 집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연못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겨울에 볼거리가 없는 정원을 한층 보기 좋게 해준다.



Snowhill: 네모난 정형식 연못을 만들고 모퉁이 네곳에 정형식으로 토피어리를 물통에 심어 형태를 극대화시켰다.



Snowhill: 여러 개의 노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곳 정원에서 제일 아래 층에 만들어져 있는 연못. 가운데 인형의 집같이 귀여운 소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Marle place: Sunken garden - 주변 지역보다 움푹 들어간 형태의 정원을 썬가든이라고 한다. 지형을 낮게 만들고 가운데 연못을 두었다.



Great dixer: 이곳도 주변보다 지형이 낮게 만들어진 sunken garden이다. 연못 속의 악어가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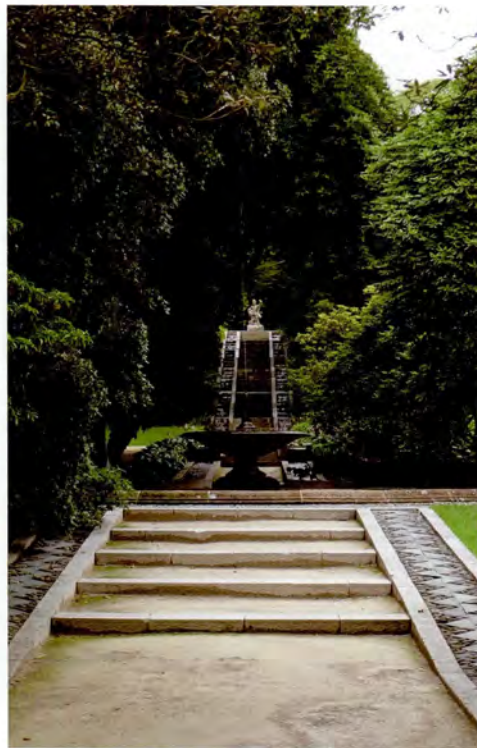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연못(pond)이외에도 분수(Fountain), 개울(stream), 실개천(Rill), 컨테이너 연못(Container ponds)등이 있다. 만약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연못을 만드는 것 보다 얕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분수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연못의 경우 설치하기도 쉽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원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소품을 이용하여 분수를 만들어 사용하여도 좋다. 수도관과 물을 뿜어주는 펌프만 있으면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토기화분 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연못을 만들 수도 있다. 개울이나 실개천은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클래식한 정형식 정원에도 쓰기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식물 배치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계곡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날리는데 우리 집 정원에 이렇게 물을 이용한 곳이 있다면 좀 더 쾌적한 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Alnwick garden: 테마 파크보다 더 재미난 어린이 놀이터 정원. 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원이다. 조형물의 형태에 따라 물이 어떻게 담기고 흐르는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의 모습 등을 보여준다.



동화속에서 나올 법한 요정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이용한 분수



Holker hall: 피터레빗으로 유명한 베아트릭 포터가 살았던 Lake district에 있는 정원. 계단 양 옆으로 물이 흐르고 새들이 있어서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다.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①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에게 분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식물의 “잎”

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다. 기공을 통해 물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며, 다양한 서식지에서 식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모양과, 크기와 형태가 수없이 다양하다.



구조와 기능

잎의 기본적인 요소는 엽신(lamina)이다. 단잎은 폭 이어진 하나의 잎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겹잎은 분리된 작은 잎몸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의 잎들은 가느다란 잎자루(엽축)를 통해 줄기에 붙어있다. 그러나 많은 외떡잎식물들이 그렇듯, 잎자루가 없는 식물도 있다. 양치식물의 잎(fronds)은 보통 셀 수 없이 갈라져 있으며, 자라면서 말려있던 잎들이 퍼진다. 번식할 수 있는 포자는 보통 식물의 밑면에 형성된다. 몇몇 꽃이 피는 식물은 영공식물의 영공순처럼 잎을 변형시켜 왔다. 잎맥은 식량과 줄기 관다발조직의 연장선이다. 쌍떡잎식물의 잎에는 보통 하나의 주맥과 이로부터 뻗어나가는 보조적인 잎맥들이 있다. 외떡잎식물의 경우, 잎맥이 잎과 나란히 이어져있으며 딱히 주맥이라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관목에 있어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잎의 분류는 낙엽수인지 혹은 상록수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상록수의 일 년 내내 지속적으로 잎을 떨어뜨리고 새잎으로 대신한다. 반면에 낙엽성의 식물은 매년 잎을 교체하는데, 겨울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잎을 가을에 떨어뜨린다. 잎의 주요 기능은 광합성과 증산이다. 광합성은 엽록소(대부분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색소)에, 증산은 잎 표면에 있는 기공(미세한 구멍들)에 크게 의존한다.



침엽수 잎

대부분의 침엽수는 바늘과 같은 직선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말랑말랑한 재질의 두꺼운 외층으로 덮여 있다. 이러한 특징은 수분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겨울에 부리가 공중 먼 땅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 특히 유용하다. 잎은 대개 하나씩 배열되거나, 쌍을 이루어 줄기 양쪽으로 뽀는 형태(빛 모양), 혹은 나선의 형태로 보인다.



비늘모양참나무



빗모양메타세콰이어



바늘모양(pine)

색과 질감

낙엽성의 식물에서 잎이 노화됨에 따라, 잎의 질감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잎의 색깔도 변하기 시작한다. 이는 색소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엽록소의 소실이 주요한 원인이다. 무늬 잎(variegated leaves)의 경우 형태상의 변형 때문에 색소가 고르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왕무늬말개미취



무늬쑥부쟁이



무늬아성초



무늬엔젤리카

잎의 배열

여러 환경에서 태양광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식물의 잎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되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잎의 배치가 빗물을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속 또는 껍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흔히 잎의 배열이 비슷하다.

어떠한 종에서는, 각각의 잎 마디마다 잎들이 뽀뽀 밀집되어(줄기와 함께) 장미 또는 나선 모양을 형성한다. 다른 종에서는 잎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짝을 이루어 피어나서, 줄기에 일정한 간격(bare stem : internode)을 두고 정반대로 나는 형태, 교대로 나는 형태, 또는 잎을 꿰뚫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어떤 잎들은 줄기를 주변에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 대생 - 잎이 쌍을 이뤄 같은 지점에 반대방향으로 배치된다.



▶ 관생 - 줄기를 감싼 잎이 개별 혹은 쌍으로 배치된다.



▶ 로제트 - 잎이 줄기의 한 지점 또는 식물의 하단부로부터 발산하며 뽀뽀 밀집하여 배치된다.



▶ 운생 - 셋 혹은 그 이상의 잎들이 함께 줄기를 주변에 배치된다.



▶ 2열 - 2개의 납작한 잎이 줄기 주변의 반대 옆에 배치(대생)된다.



▶ 4열 - 잎들이 짝을 이루어 직각으로 교차하며 배치(호생)된다.



- 가든인 생생정보 -

향기좋은 가을 국화
감국

감으로 만든 술&차

▶ 감국주(국화주) : 국화주(菊花酒)는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이 날 때, 자주 피로할 때 마시면 좋다.

만드는 방법(재료-감국200~250G, 소주 1L, 얼음 설탕5~10G)

1. 용기에 감국을 넣고 소주와 얼음 설탕을 넣는다.
2. 용기 뚜껑을 닫아 시원한 곳에서 2개월 정도 숙성한다.



▶ 감국차(국화차) : 국화차는 가을 이슬이 내릴 때 산야의 감국을 따서 벌에 말려 꼭 밀봉해 두었다가 차로 끓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한 여름에는 갈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본초강목)에는 감국차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쉬 늙지 않는다. 위장을 편안케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하고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고 기록되어있다.

1. 마른 국화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꿀과 고루 섞어서 재워 용기에 넣고 밀봉하여 습기 없는 곳에 3~4주 보관한다.
2.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마신다.

▶ 감국녹차 : 감국에는 항균작용과 소염효과가 있고, 녹차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끓인 물을 넣어 우려내어도 비타민의 손실이 없다. 감국과 녹차를 함께 쓰는 감국녹차는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으며 간을 깨끗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한다.

감국을 이용한 천연 헤어팩

- ① 감국을 소금물에 10~15분 정도 담가둔다.
- ② 감국을 꺼내 2~3일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린다.
- ③ 물 2000cc에 말린 감국을 50g 넣고 1500cc를 때까지 줄인다.
- ④ 물을 식혀 머리를 30분 정도 감는다. 다른 샴푸나 린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녹두

녹두는 몸 안에 생긴 열독을 없애주며, 염증성 질환을 소염시키고 숙취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강한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중독을 쉽게 풀어준다. 약물중독에는 녹두를 갈아 생즙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약물중독으로 만성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녹두죽을 꾸준히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녹두는 피부질환에도 효험이 있다. 땀피에는 녹두가루를 뿌리고 수포나 농포가 생겼을 때는 녹두죽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녹두는 여름철 무더위에 많이 나는 여드름과 종기를 고치기도 한다. <식료본초>에도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면 녹두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써어있을 만큼 피부질환에 효과가 좋다. 또 녹두는 열을 내리고 독과 종기를 풀어주는 해독작용과 해열작용이 크다. 이밖에 갈증과 위장의 열 때문에 생기는 입냄새를 없애주며 설사를 그치게 하고 소변을 원활하게 배설시키는 작용도 한다. 그렇지만 저혈압이나 냉증이 있는 사람이 피로할 때 먹으면 오히려 원기가 떨어지며,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GARDEN & BOOK

이야기로 듣는 야생화 비교도감

글, 사진 이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식물학의 기초와 식물학 용어해설 수록



저자소개

저자 이영호는 1958년 충북 단양 출생. 단양 중학교 졸업, 충주고등학교 졸업, 충북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생물학 전공),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식물생태학 전공), 현재 의정부 부용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활동은 36년째 야생화 사진 촬영. 야생화 홈페이지(이영호의 야생화) 운영 [HTTP://WWW.SKYSPEACE.PE.KR](http://www.skyspace.pe.kr), 의정부정보도서관 야생화이 야기 강좌운영(13년째), 저서로는 의정부 야생식물도감 1~4집과 어린이 식물백과(2005년 대교출판)를 발간하였으며 두산백과사전 식물부문 집필위원이다.

한국의 야생화 바로 알기

글, 사진 이동혁

우리나라 야생화의 모든 것! 통합본

<한국의 야생화> '봄편'과 '여름, 가을편'을 한 권으로 묶어 최신판으로 개정한 통합본이다. 우리나라 산과 들, 숲에서 자라는 풀꽃들을 찾아 다니며 촬영한 1,890종의 야생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러 야생화 도감에 수록되지 않은 최근에 발견된 신종들과 오류를 바로잡은 수정 중, 그리고 여러 풀꽃들의 변종과 품종은 물론, 비슷한 야생화의 변이까지 생략임식물과 외떡잎식물, 그리고 양치식물로 구분하여 망라하였다.

필드에서 야생꽃 동정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최소 3장~7장씩의 사진을 배치, 풀꽃의 전초 모습과 꽃, 잎, 줄기, 뿌리줄기, 열매, 씨앗, 어린 개체, 유사종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풀꽃의 식별 포인트나 최신 정보를 '원포인트'로 제시하여 그것만 보고도 식물의 동정은 물론, 특징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소개

1969년 경기도 오산 출신. 서울고를 졸업하고 뒤늦게 단국대 물리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하였다. 재학 중 안도현 시인에게 '시 쓰기'와 '시 읽기' 수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풀꽃나무의 이름 공부를 하다가 본격적인 식물 공부 및 사진 촬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8년 중앙일보에 <해이섬촌의 꽃따라기(記)>를 1년 동안 연재하였고, 2008년 최귀수생식물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 전국환경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오감으로 쉽게 찾는 우리 야생화', '오감으로 쉽게 찾는 우리 나무', '우리나라 나무이야기(제갈명 공저)', '꼭 가봐야 할 우리나라 수목원&식물원23', '초보자도 꼭 알아야 할 손바닥 식물도감(봄편, 여름가을편)', '야생화여행 꽃따라기', '한국의 나무 바로 알기', 등이 있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성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등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북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원예중요(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화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명섭 농학박사 /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신제품 출시!!



오렌지글로브 Orange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5



핑크글로브 Pink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3



크림글로브 Cream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1



미노스개울 Mosse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젠틀맨 Gentlema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7



오렌지파크 Orang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7



화이트파크 Whit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9



살몬링 Salmon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5



미니볼프рук Miniball pumpk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



미니볼루비 Miniball ruby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2



핑크볼 Pink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1



에브리파크 Avery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



베건 Vega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0



옐로우링 Yellow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6



이브닝스타 Eve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5



골든볼18 Golden ball 18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6



애플링 Apple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4



레몬파크 Lemon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



모닝스타 Mor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3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 품종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구입문의 : 031-634-7990